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연구책임자 :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재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4

발행일	2022년 1월 28일
저자	이상신, 이재원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SBN	979-11-6589-088-9 93340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	13
1. 연구의 개요	15
2.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한국학의 역할	19
II. 해외 한국학 현황 및 설문조사	29
1. 현황조사 및 설문대상 선정	31
2.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35
III. 해외 주요 대학 관계자 심층면접 및 분석	55
1. 심층면접 대상	57
2. 해외 한국학의 현황	59
3. 해외 한국학의 문제점	69
IV. 결론 및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해외 한국학 발전방안	77
1.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연구	80
2. 온라인 강의 제공	82
3. 단기 파견을 통한 집중강좌 제공	84
4. 장기 파견을 통한 공동연구 및 지도	85
5. 한국 통일공공외교 유관기관의 글로벌 인턴십	87
6. 젊은 해외 한국학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 및 발표 제공	89

참고문헌	91
부록	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9

표 차례

〈표 I-1〉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의 세부 내용	21
〈표 I-2〉 공공외교 개념의 비교	24
〈표 I-3〉 지역별 한국학 혹은 한국 관련 과정 제공 대학	25
〈표 II-1〉 해외 한국학 과정 기관 및 교수직 현황	32
〈표 II-2〉 설문조사 응답기관	33
〈표 II-3〉 대형 한국학 프로그램 (400명 이상)	39
〈표 III-1〉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57
〈표 III-2〉 심층면접 대상기관 현황	58

〈그림 I-1〉 공공외교 추진전략	20
〈그림 I-2〉 공공외교 개념의 비교	23
〈그림 I-3〉 프랑스의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 지원자의 증가 현상	27
〈그림 II-1〉 해외 한국학 연구 현황	31
〈그림 II-2〉 한국학 학위과정 설치 현황	36
〈그림 II-3〉 한국학 프로그램 수강생 규모 현황	37
〈그림 II-4〉 교원 고용 현황	40
〈그림 II-5〉 현재 제공되는 강의 현황	41
〈그림 II-6〉 한국학 교원의 전공분포 현황	43
〈그림 II-7〉 한국학 강좌 수요 증가 예측과 현황 비교	45
〈그림 II-8〉 추가개설이 필요한 과목	47
〈그림 II-9〉 해외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48
〈그림 II-10〉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신청 경험	49
〈그림 II-11〉 지원기관 분포	50
〈그림 II-12〉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51
〈그림 II-13〉 통일연구원 인지도	53
〈그림 II-14〉 통일공공외교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평가	54

글상자 차례

〈글상자 III-1〉 지역학으로서 한국학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60
〈글상자 III-2〉 증가하는 학생 수요 관련 발췌내용(독일)	61
〈글상자 III-3〉 한국학 학생 비중의 증가 관련 발췌내용(스웨덴)	61
〈글상자 III-4〉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구직 관련 발췌내용(멕시코)	62
〈글상자 III-5〉 현지 한국 기업 선호의 영향 관련 발췌내용(인도네시아) ..	63
〈글상자 III-6〉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64
〈글상자 III-7〉 해외 한국학 교원 부족 관련 발췌내용(이탈리아)	66
〈글상자 III-8〉 현지 역량 강화 관련 발췌내용(멕시코)	66
〈글상자 III-9〉 한일관계의 영향 관련 발췌내용(일본)	67
〈글상자 III-10〉 보수적 지역 사회와 학계 관련 발췌내용(미국 아이오와대학교) ·	68
〈글상자 III-11〉 교재 개발 필요성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70
〈글상자 III-12〉 연구에 필요한 자료 부족 관련 발췌내용(독일 본대학교) 71	
〈글상자 III-13〉 교원 확충 문제와 관련한 발췌내용(영국)	72
〈글상자 IV-1〉 공동연구를 통한 교재 개발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81
〈글상자 IV-2〉 온라인 강좌 관련 발췌내용(이탈리아, 독일, 인도네시아) ..	83
〈글상자 IV-3〉 단기 파견 집중강좌 관련 발췌내용(일본)	85
〈글상자 IV-4〉 장기 파견 관련 심층면접 발췌내용(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	85
〈글상자 IV-5〉 인턴십 관련 심층면접 발췌내용(영국)	88

요약

이 연구는 해외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통일공공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평화, 통일 그리고 남북관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해외 한국학의 수요조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한국의 위상 변화 및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학 중심으로 한국학의 저변이 확대되고 K-Pop 및 K-드라마 등 문화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면서 어학 중심의 한국학에서 탈피하여 보다 심화된 한국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해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한국학 강좌를 늘리고 있다. 강좌의 내용도 어학 및 문화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남북관계, 통일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한반도의 현실과 남북관계, 우리의 통일 노력과 대북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해외의 한국학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들은 언어와 문학, 역사, 대중문화 등이 중심이 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원들의 전공도 이와 비슷하게 언어와 문화를 전공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과학이나 기타 전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다. 그 결과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및 동북아시아 안보 등 통일공공외교와 관계된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소수에 그치고 있었다.

향후 한국학의 수요에 대한 전망을 질문했을 때, 높은 비율로 언어와 대중문화에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답이 많았으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현재 제공되는 강좌 수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강좌의 양적 팽창이 요구되는 반면, 한국학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과학 영역을 포괄하는 좀 더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에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많은 한국학 프로그램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학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한국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유지될 수 있는 한국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외교의 다음 단계 목표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이 이들 한국학 프로그램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네 가지의 지원방안 프로그램(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지원, 온라인 강의 지원, 단기 집중강좌 지원, 장기 강사 파견 지원)을 예시로 들어 의견을 물었다. 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80%를 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청이 높았으며, 반면에 장기 파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통일공공외교를 위해 통일연구원 등 관련 국책연구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첫째,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근 내용이 반영된 교재 개발 혹은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공동연구도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한국학 교원이 교재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일공공외교의 전문가가 참

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과 협력 대상국의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온라인 강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국내의 대학들과 계약을 맺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수요와 이에 발맞추어 다양화되고 있는 관심의 범위를 온전히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의 정책전문가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현황을 빠르게 전달해 준다면 현지 강사 파견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일 공공외교 활동이 될 수 있다.

셋째, 전문가들을 1~2주 정도 단기로 파견하여 집중강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기 파견을 통한 집중과정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예산 상의 이유로 장기간 체류가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1~2주간의 단기 집중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전문가들을 1학기 혹은 1년 이상 장기 파견하여 강의하게 하고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장기 파견은 현지 교원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통일과 남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통일공공외교 전문가와의 면담은 학위 논문 준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수요가 크다. 특히 박사 논문 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통일공공외교 유관기관의 인턴십 제공도 적극 고려해야 한

다. 글로벌 인턴십(internship)은 해외의 중요한 싱크탱크들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싱크탱크들은 인턴십에 참여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수는 무급 혹은 교통비 정도만 제공한다. 이는 학문후속세대들의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젊은 세대 연구자들에게 실제로 정책연구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통일공공외교와 관계있는 연구기관들이 해외 한국학 운영 기관의 학생에 인턴십을 제공하거나 교원에게 펠로우십(fellowship)을 제공함으로써 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안 또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해외의 젊은 한국학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및 발표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의 연구가 자생적인 한국학 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로 성장한 이들이 한국학 후속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한국학, 공공외교, 소프트파워, 통일연구원, 통일정책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dark gray circular shapes are positioned on the left, one near the top and one near the bottom. The right side of each circle is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squares, creating a textured effect. The overall design is minimalist and modern.

I. 서론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해외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통일공공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평화, 통일 그리고 남북관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해외 한국학의 수요조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한국의 위상 변화 및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학 중심으로 한국학의 저변이 확대되고 K-Pop 및 K-드라마 등 문화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면서 어학 중심의 한국학에서 탈피하여 보다 심화된 한국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해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한국학 강좌를 늘리고 강좌의 내용도 어학 및 문화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남북관계, 통일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한반도의 현실과 남북관계, 우리의 통일 노력과 대북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한국학의 위상에 비해 기존 프로그램의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도 매우 우수하다. 다만 한국학 강좌를 설치한 해외 대학의 숫자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음에도, 문화 및 언어 중심의 강의를 이루어지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학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어학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석·박사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 등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와 한국학 교육의 지속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남북관계 등 한국학의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한국학의 발전과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서의 선진국 지위 향상, G7 초청, D10 논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적 사례로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등에 비추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연구 저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드파워(군사력과 경제력) 및 소프트파워(문화와 매력) 증가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외교 부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 한국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및 통일연구를 목표로 설립된 국내의 유일한 정책연구원이다.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현안 및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외국에 알리고 홍보하는 통일공공외교는 통일연구원의 정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은 지금까지도 통일공공외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해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통일연구원은 지금까지의 통일공공외교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해외의 한국학 및 통일·북한학 수요를 직접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통일연구원의 정책공공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등과의 협업체계를 재구축하여 좀 더 내실 있고 수요자 중심적인 공공외교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통일공공외교 기반 마련 그리고 통일공공외교 정책 제안에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 및 북한학 관련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이다. 해외의 한국학 개설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한국학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한국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한국학의 현황과 강좌 수요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학 전문가가 이미 많이 진출해 있는 북미 지역,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 따라 한국학의 수준이 높은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유럽 및 동남아·서남아 지역 등 한국학의 수요는 지역과 그 국가의 내부 사정에 따라 각각 매우 다르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통일공공외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둘째, 증장기적 관점에서 외국 학생 및 재외국민 등 대상 공공외교의 기반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책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국의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해외 한국학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한 통일공공외교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통일공공외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추진 방법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문조사를 포함한 해외 한국학 수요조사 및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한다. 첫째, 해외 한국학 수요조사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 대학 한국학 현황 통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학부 이상 한국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해외 주요

대학의 현황을 조사한다. 현황조사를 토대로 주요 대학의 전문가(한국 연구센터장 혹은 한국학과장 등)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학의 강좌 현황과 수요에 대한 평가, 향후 발전 방향과 요청사항 등 구체적인 한국학 수요를 조사한다.

둘째, 해외 전문가 인터뷰이다. 지역별 주요 기관의 한국학 프로그램 보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한국학 현황, 커리큘럼 현황과 발전방안, 인적 교류 방안 등 해외 한국학 발전 방안을 청취한다.

라. 기대 효과

통일공공외교의 일환으로서 한국학에 대한 수요조사는 미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커리큘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한국학 현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회과학 세부분야의 연구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사회과학 등 세부분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커리큘럼 지원 등 미래의 수요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해외 한국학 커리큘럼의 확대 및 발전에 대한 기여이다. 동북아 안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 및 강의자료 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실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한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를 제공하여 통일공공외교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통일공공외교의 질적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일공공외교 및 1.5 트랙 대화의 노력이 주로 단기적, 일회성으로 이루어

지는 한계를 보여왔다. 한정된 숫자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현안에 대해 회의 형식으로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임 있는 국책연구원이 외국의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한국학의 역할

가. 통일공공외교의 의미

통일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근간이 되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은 한반도 정책에 우호적인 전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공공외교와 한국학의 진흥을 강조한다. 동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을 두고 네 가지 목표로서 첫째,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둘째,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셋째,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넷째,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 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정착을 내세우고 있다.¹⁾

이를 위해 공공외교는 문화, 지식, 정책이라는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분하여 <그림 I-1>과 같이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문화공공외교는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를 제시한다. 둘째, 지식공공외교는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둔다. 셋째, 정책공공외교

1) 외교부는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외교부(n.d.).

는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공공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며,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외교부 2017, 11).

공공외교의 세 가지 주제 중 통일공공외교는 일차적으로 정책 부문과 관련이 깊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지도를 반영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할 것을 주문한다(외교부 2017, 37). 현지의 특성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하여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와 통일정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4강과 EU 주도국 등 중점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중동, 중남미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림 I-1> 공공외교 추진전략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 국내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 민관 협업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강화 		
공공외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협업 및 조율 체계 확립 • 공공외교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선순환적 공공외교 성과평가 체계 확립 •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공공외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출처: 외교부(2017, 11).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정책공공외교의 외연을 그 대상, 주체, 방식 및 콘텐츠에 있어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외교부 2017, 36-38). 특히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 일반 국민 및 여론주도층 대상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위해 지역별 여론 환경, 문화적 특성 그리고 국민성 등을 고려한 정책 콘텐츠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외교부 2017, 39). <표 I-1>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I-1>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의 세부 내용

정책 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공공부문 콘텐츠 활용 제고	현황 파악 및 재외공관 공유
	아웃리치 활용 콘텐츠 제작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자료의 제작
		한국의 국가정체성(평화, 선진국-개도국 가교)을 강조
		재외공간의 국경일 기념 행사 영상 자료 제작
	대상 국가의 특성을 반영	상대국과의 역사적 맥락 및 전략적 유사성을 고려한 자료 개발
주요 언어로 번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출처: 외교부(2017, 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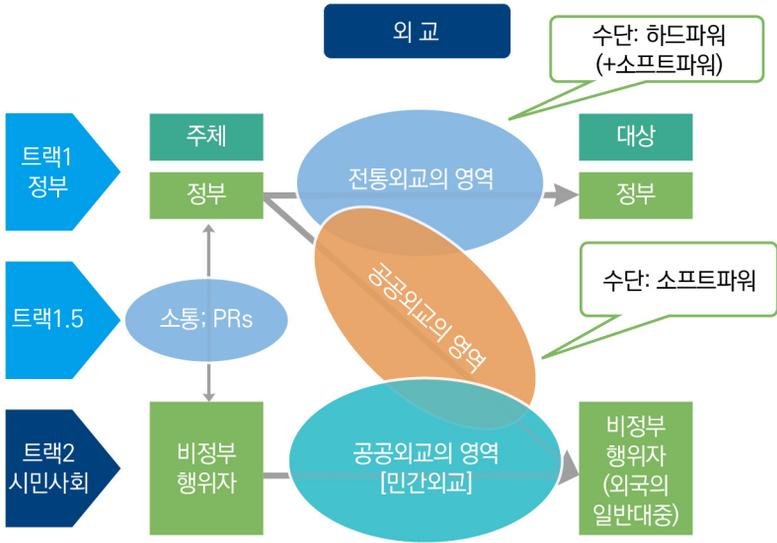
이어서 이차적으로 통일공공외교는 지식공공외교와 한국학의 진흥과도 관련이 깊다. 한국학의 진흥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반도와 남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유도할 수 있다면,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해외 여론 형성에도 긍정적인

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교부도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외교는 주로 외국의 대중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NGO·대학·언론 등도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식층에 대한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외교부, n.d.).

지식 및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통일공공외교는 기존의 공공외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공외교에 있어서 행위자는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정부(트랙 1), 전직 공무원 및 정책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대표되는 준정부(트랙 1.5), 그리고 비정부기구, 학계 그리고 시민운동가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트랙 2)로 분류될 수 있다.

공공외교는 <그림 I-2>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트랙 1과 외국의 트랙 2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공외교는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의 트랙 1에 존재하는 정부 행위자와 외국의 트랙 2에 존재하는 비정부 행위자를 수평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트랙 1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외교의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통일공공외교는 이러한 기존의 정부 행위자가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통일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기존 공공외교가 트랙 1과 트랙 2를 가로지르고 있다면, 지식을 전파하는 통일공공외교는 한국의 통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행위자 중심의 트랙 1.5에서 트랙 2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2> 공공외교 개념의 비교



출처: 김태환(2020; 임원혁 2020, 8 재인용).

이러한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는 외교부의 21세기 신공공외교에서 요구하는 여섯 가지 특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 자국민을 포함하는 상대국의 정부와 대중, 소프트파워에 중점을 두는 자원과 자산의 배분, 디지털 매체의 활용, 수평적 관계의 구축, 개방적인 소통 방식을 말하며, 기존의 전통외교와 달리 주체와 대상이 확대되고,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에서 문화와 지식 등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며, 정부 간 공식 외교 채널을 넘어서 인터넷과 SNS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며, 일방적이고 폐쇄된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개방된, 즉 공공외교 지식을 창출하는 공급 측면과 이의 대상이 되는 수요 측면의 조건을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2>는 21세기 신공공외교를 전통외교와 20세기 공공외교와 비교한 것이다.

<표 I-2> 공공외교 개념의 비교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은 불포함)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도 포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 간 공식협상, 대화	선전, PR캠페인, 구미디어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 유형	수평적 (정부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 양식	Closed Negotiation	Close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출처: 외교부(n.d.).

더 나아가서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이 되는 외국 대중도 한국학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으로 한국과 관련한 자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술 대중과 그 외 일반 대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통일외교와 관련하여 학술 대중이 일반 대중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외교 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선거에 동원되는 일반 대중의 역할보다 큰 것이다. 대외정책에 한정할 때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주제보다 중국 및 러시아와 관련한 주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대중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공공외교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²⁾

이와 달리 학술 대중은 한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국과 한국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대외정책을

2) 공공외교 전문가와의 인터뷰(2021.12.8.).

이해하고 자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한국학이 통일공공외교에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학술 대중에 대한 접근은 곧 한국학의 진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학과 문화 중심의 한국학에서부터 한반도 및 남북한 관계, 한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과학 측면에서의 한국학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나. 해외 한국학의 문제점

통일공공외교와 한국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한국학은 주로 한국어 및 문화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공하는 ‘해외대학한국학현황 통합검색’에 따르면 한국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해외 대학은 2021년 11월 기준 1,408개에 달한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표 I-3>과 같다. 또한 2020년 12월 기준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143개로 추산되며, 지역별로는 북미 98개, 아시아 4개, 유럽 29개, 대양주 12개이다.

<표 I-3> 지역별 한국학 혹은 한국 관련 과정 제공 대학

미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미 카리브	서유럽	중유럽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147	34	38	78	82	711	141	30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89			31	13	14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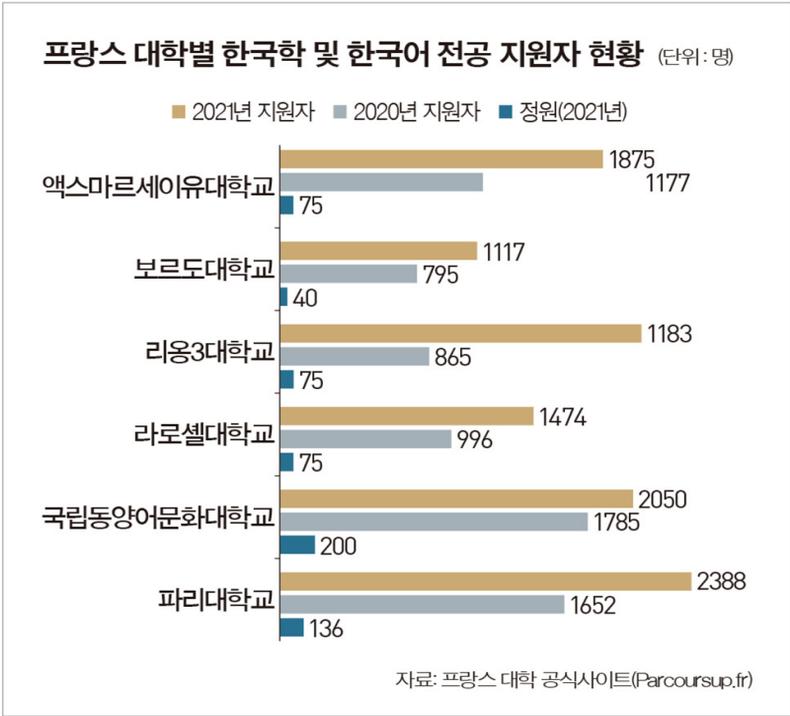
이처럼 한국학은 주로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한국학 강의를 제공하고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대학은 여전히 매우 한정적인 수준이다. 한국학 교수직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총 143개 교수직 중 문학 및 문화가 33개, 한국어가 28개, 역사 21개로 총 82개(57.3%)로 나타난다. 즉, 해외의 한국학은 한국 언어와 문화, 문학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한 해외 문화홍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인지도가 현대문화, 문화 유산, 안보, 경제 순으로 나타나면서 사회과학 분야로서 해외 한국학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확인해 주고 있다(해외문화홍보원 2020, 16).

이러한 인문학 중심의 한국학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외 한국학 전문가의 견해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니키 올스포드(Niki Alsford) 영국 센트럴 랭커셔대학 국제한국학연구소장은 한국학이 인문학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학이 제2시기에 들어섰다고 강조한다(주현지 2018). 이에 덧붙여 유럽 한국학 학회에서도 인문학 외에 사회과학 분야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수요에 따라 교원 공급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질적으로 충분한 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들이 적절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국가적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주현지 2018).

프랑스 라로셀 대학교 응용외국어학과의 홍소라 교수도 한국학 전공 지원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홍소라 2021). <그림 I-3>은 프랑스의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 지원자의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3> 프랑스의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 지원자의 증가 현상



출처: 홍소라(2021).

예를 들어 “2021년 현재 총 22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총 7개교이다. 그중 두 학교에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 사회, 인류학, 문학, 예술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한국학과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다섯 개 학교에는 응용외국어학과 한국어 전공이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홍소라 2021). 이에 따라 해외의 관점에서 한국이 더 이상 단순히 이국적 취향에 머물지 않고 보다 진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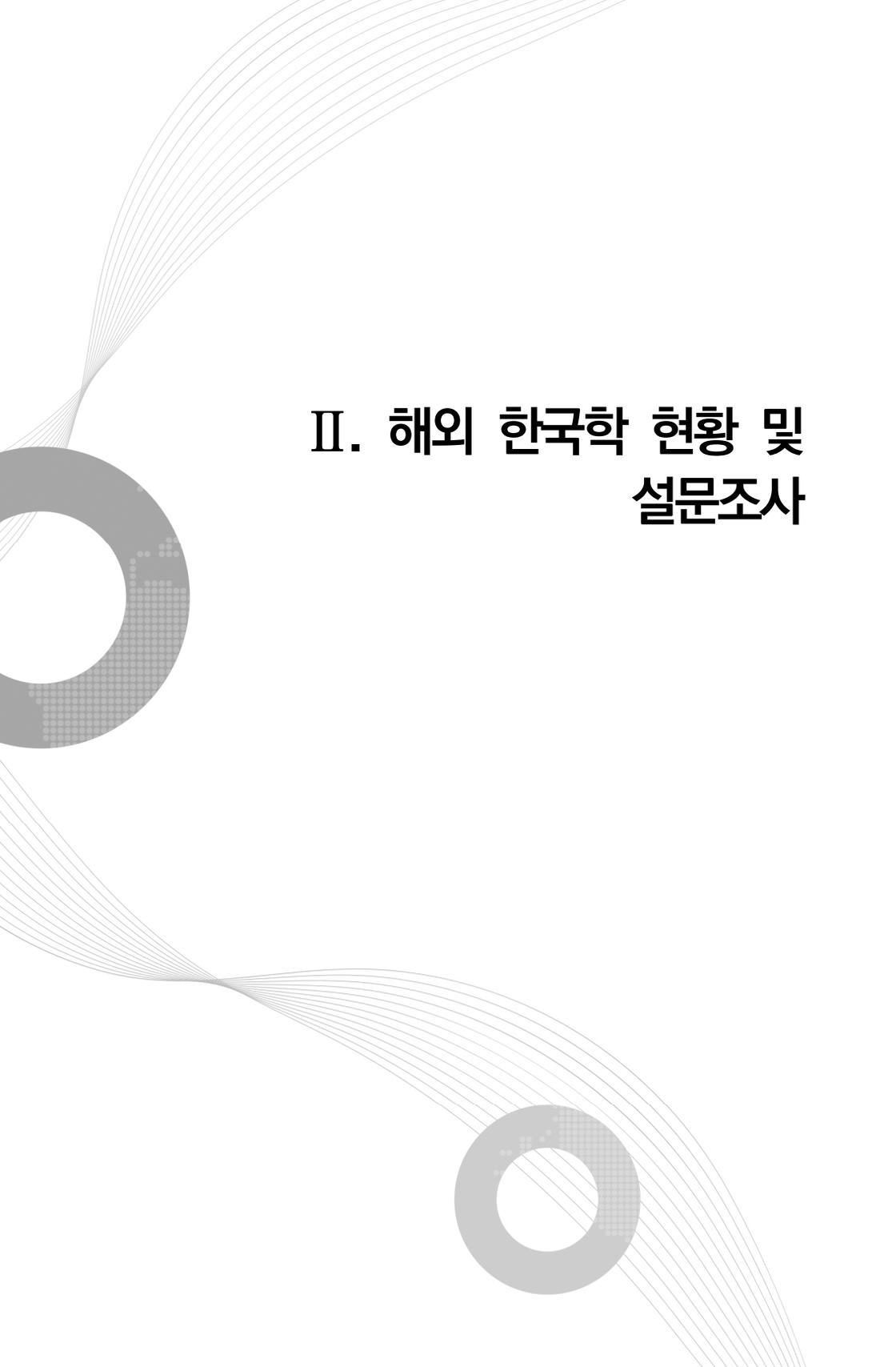
최근 해외 한국학의 발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 등의 기여가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제교류처 해외한국학지원실에서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을 공모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사업을 통해 해외 대학에 한국학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은 교수직 설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은 해외 대학에 (1) 한국어 교수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한국학 프로그램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2)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교원 임용 시 임금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3) 한국에서 객원교수를 파견하여 한국학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각각의 사업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교수직 설치지원: 총 12개국 25개 대학 지원 중 한국어/문학/문화/인문학 13개, 사회과학 12개
- 교원 고용 지원을 통한 강좌제공: 14개국 23개 대학 지원 중 한국어 강좌 21개, 한국학 강좌 2개
- 객원교수 파견을 통한 강좌제공: 49개국 79개 대학 중 한국어 강좌 70개, 한국학 강좌 9개

그러나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수직 설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요 측면에서 어학 중심을 벗어나 한국의 정치 및 경제, 국제관계 등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교원의 수 등 공급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실정에도 교원지원이나 객원교수 파견을 통한 강좌 제공의 경우, 한국어 강좌 지원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및 비핵화, 동북아 안보 등을 소개하는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consists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grey, circular shapes are integrated into these lines. The upper circle is partially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and the lower circle is also partially filled with a similar dot pattern. The overall design is minimalist and modern.

II. 해외 한국학 현황 및 설문조사

2021년 1월 기준 조사결과 해외에서 한국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1,394곳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로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한국학 과정이 집중되었으며,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한국학 강의를 제공하고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대학은 아직 매우 한정적인 수준이다.

한국학 교수직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총 143개 교수직 중 문학 및 문화가 33개, 한국어가 28개, 역사 21개로 총 82개(57.3%)로 나타난다. 즉, 해외의 한국학은 한국 언어와 문화, 문학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II-1> 해외 한국학 과정 기관 및 교수직 현황

지역	전체 기관의 수	교수직 설치 기관의 수
북미	148	98
남미	35	-
중미	38	-
동남아	137	4
동북아	701	
서남아	30	-
서유럽	80	28
중유럽	78	1
유라시아	89	-
중동	31	-
아프리카	13	-
대양주	14	12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n.d.)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해외 한국학과 관련한 배경 및 현황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총 280개 대학에 설문조사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

였으며, 총 50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총 50개 기관으로, 각 기관을 국가별로 나눠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설문조사 응답기관⁴⁾

국가	기관명
뉴질랜드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Auckland
러시아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Moscow State Linguistic University
	MGIMO University
루마니아	University of Bucharest
리투아니아	Centre for Asian Studies at Vytautas Magnus University
몽골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Temple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Pen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Iowa
	Rutgers University
	Stony Brook University
	Wesleyan Un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4) 이하 본 보고서에서 별도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표와 그림은 모두 저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국가	기관명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Brigham Young University
	George Mason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University of Georgi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멕시코	Universidad Autonoma de Nayarit
베트남	Thai Binh Duong University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스웨덴	Stockholm University
슬로베니아	University of Ljubljana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영국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Imperial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Cambridge
에스토니아	University of Tartu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이탈리아	University for Foreigners of Siena
인도네시아	Universitas Gadjah Mada
터키	Ankara University
	Asian Studies Center Boğaziçi University
파키스탄	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 (NUML)
파라과이	Instituto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
프랑스	Aix-Marseille University (AMU)
폴란드	University of Warsaw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University of Wrocław
	Jagiellonian University in Krakow
호주	Monash Universit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세 주제로 분류하였다. 첫째, 해당 기관의 한국학 현황과 앞으로의 한국학 수요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둘째로는 한국 정부의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의 통일공공외교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우선 조사에 응답한 50개 학교에서는 대부분 언어와 문학, 역사, 대중문화 등이 중심이 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원들의 전공도 이와 비슷하게 언어와 문화를 전공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과학이나 기타 전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다. 그 결과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및 동북아시아 안보 등 통일공공외교와 관계된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소수에 그치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학의 수요에 대한 전망을 물었을 때, 높은 비율로 언어와 대중문화에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답이 많았으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현재 제공되는 강좌 숫자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강좌의 양적 팽창이 요구되는 반면, 한국학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과학 영역을 포괄하는 좀 더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에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많은 한국학 프로그램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학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유지될 수 있는 한국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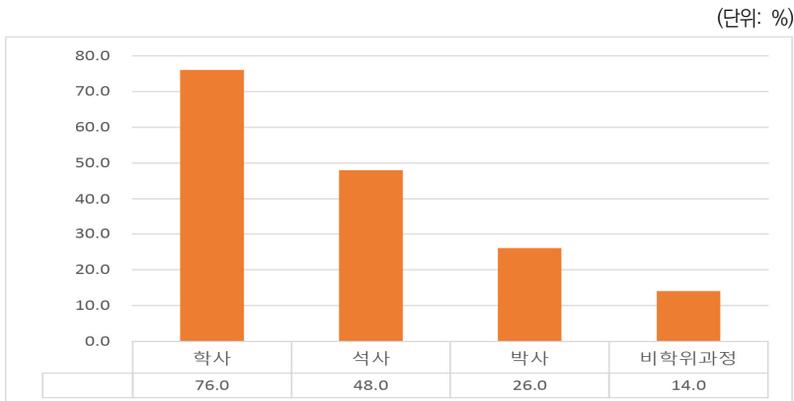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외교의 다음 단계 목표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이 이들 한국학 프로그램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네 가지의 지원방안 프로그램(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지원, 온라인 강의 지원, 단기 집중강좌 지원, 장기 강사 파견 지원)을 예시로 들어 의견을 물었다. 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80%를 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청이 높았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장기 파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가. 해외 한국학 현황

우선 설문조사에 응답한 50개의 대학에 현재 설치된 한국학 학위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이 물음에서, 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7개(14%)였으며, 나머지 43개 학교에는 모두 최소 학사학위과정 이상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II-2>와 같이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38개교(76%), 석사과정은 24개교(48%), 박사과정이 설치된 학교는 13개교(26%)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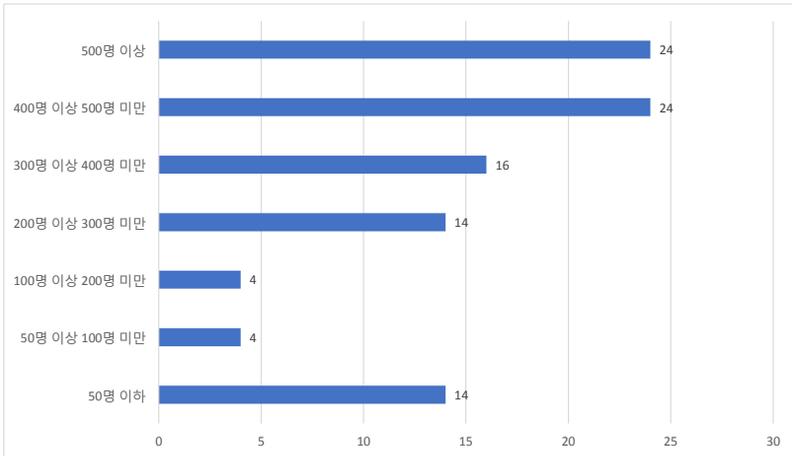
<그림 II-2> 한국학 학위과정 설치 현황



이 중에는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개설된 대학도 있었다. 석사 과정만 설치된 학교는 3개교로, 러시아의 MGIMO University, 베트남의 Thai Binh Duong University, 그리고 몽골의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등이었다. 미국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행되어 박사학위만을 제공하는 경우다.

<그림 II-3> 한국학 프로그램 수강생 규모 현황

(단위: %)



한국학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예상보다 많았다. <그림 II-3>에서 나타나듯이 5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총 50학교 중 12개교에 달했다(24%). 4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라고 답한 학교도 24%여서, 전체 조사대상 대학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가 400명 이상의 대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에 따라 집계 방식이 달라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수강생 숫자는 한국학 과정에 등록하여 한국학 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교에서 일반교양으로 한국어

와 한국 문학, 역사 등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위의 수강생 숫자는 이러한 교양과정에 등록된 학생 숫자를 합한 것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도 이번 조사의 결과는 한국학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로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24개의 대학은 <표 II-3>과 같다. 500명 이상 학교 12개교 중 미국이 4개 학교, 400명 이상에서는 2개 학교가 포함되어, 지금까지 공공외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는 한국학의 기반이 어느 정도 공고하게 잡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동유럽 등에 위치한 다양한 나라의 대학들에서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학 관련 강좌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서구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G7에 초청받는 등 선진국의 대열에 확실히 합류하였으며, 앞으로는 공공외교의 대상을 북미 및 서유럽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지역에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 루마니아, 몽골, 폴란드 등의 국가는 공산주의를 경험한 국가들로 북한과의 비교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온 국가들이기도 하다. 이 국가들에서 한국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대학들 및 그 국가들의 기타 연구기관들과 통일연구원이 공공외교를 통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강생 숫자와 함께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원들의 고용형태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교원확보를 위해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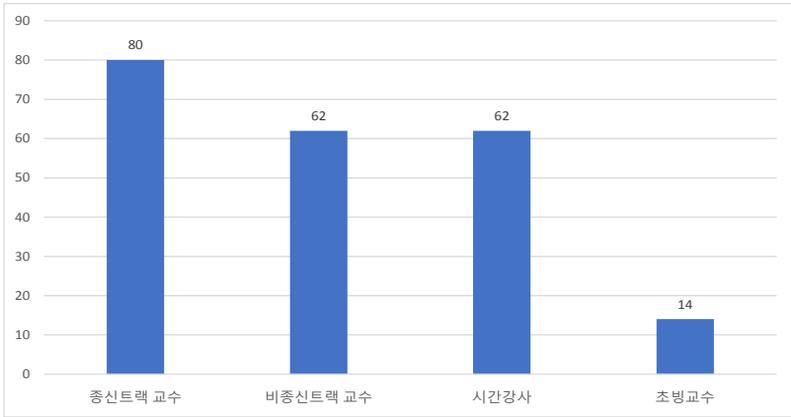
국제교류재단의 교원 대상 재정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한국학 교원의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학 프로그램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따라서 안정된 정년이 보장된 종신교원이 확보되었는가는 공공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표 II-3> 대형 한국학 프로그램 (400명 이상)

500명 이상	400명 이상
터키 Asian Studies Center Boğaziçi University	뉴질랜드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파라과이 Instituto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러시아 MGIMO University	미국 Dartmouth College
파키스탄 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	베트남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미국 Temple University	폴란드 University of Warsaw
베트남 Thai Binh Duong University	폴란드 Jagiellonian University in Krakow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러시아 Moscow State Linguistic University
슬로베니아 University of Ljubljana	몽골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멕시코 Universidad Autonoma de Nayarit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미국 University of Arizona
미국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루마니아 University of Bucharest

<그림 II-4> 교원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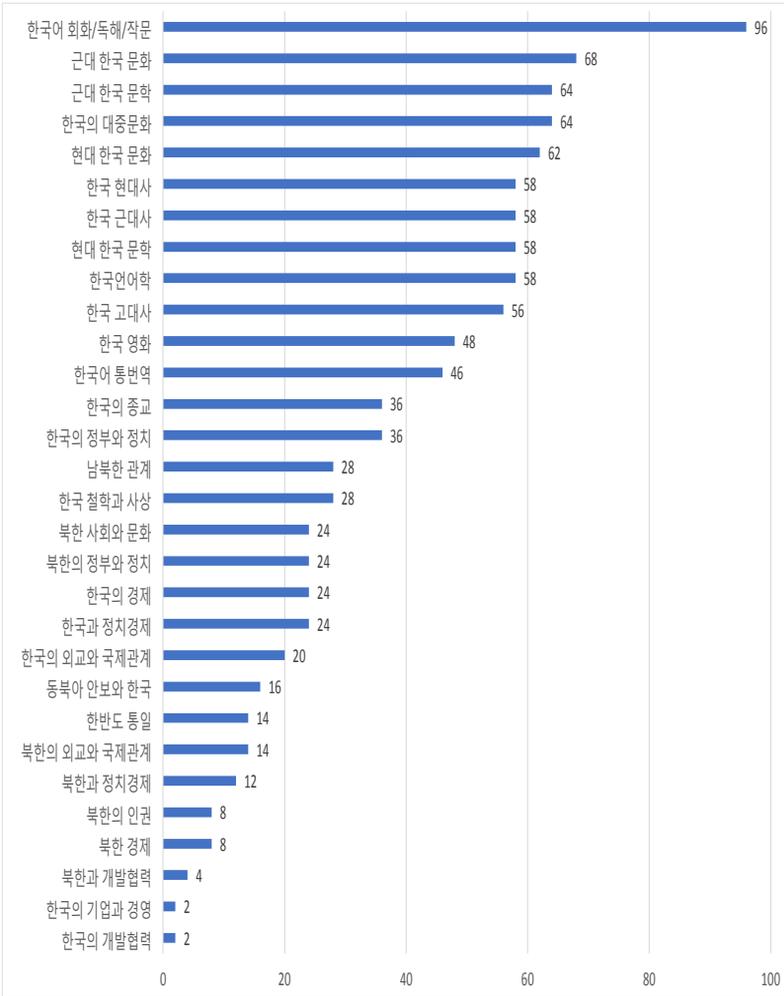
(단위: %)



중복 답변을 허용하여 현재 한국학 프로그램에 고용된 교원들의 고용형태를 조사했다. <그림 II-4>와 같이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80%의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종신티랙 교수를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학 프로그램의 종신티랙 교수는 한국학 전공이 아니라 비슷한 중국학이나 일본학, 혹은 아시아 지역학 등의 교수인 경우가 포함된 숫자라는 점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한국학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학 등의 부수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경우 한국학 프로그램의 행정적 운영자는 한국학과 관계없는 타 전공의 교수일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사례를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번 조사에 응한 대학들의 경우 한국학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고용 측면에 있어 상당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5> 현재 제공되는 강의 현황

(단위: %)



그렇다면 이들 대학의 한국학 과정에는 어떤 강의가 개설되어 있을까? 현재 어떤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물었을 때 <그림 II-5>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역시 한국어와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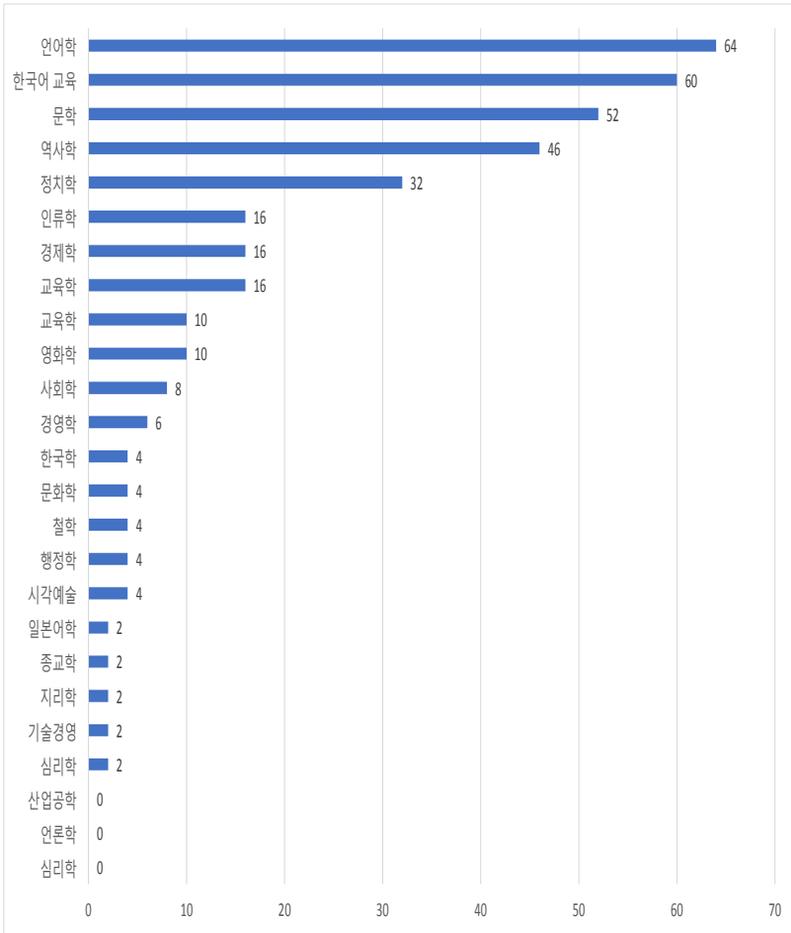
문화에 대한 강의 중심으로 한국학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개 대학(미국 다트머스대학과 멕시코의 나야리트자치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회화/독해/작문과 관련된 강의가 모두 개설되어 있었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 두 대학교도, 한국어 어학강의를 제공하는 부서와 한국학 프로그램이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와 현대의 한국 문학 및 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관련 강의들이 60%가 넘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었고, 근현대사와 고대사, 언어학 강의도 절반 이상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었다. 한국 영화는 48%, 한국어 통번역 또한 46%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나 통일, 북한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은 이에 대한 관심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 관계를 강의하는 대학은 4분의 1 정도이고, 통일이나 북한정치, 북한 경제 등을 강의하는 대학은 조사 대상 중 7개 이하였다. 북핵 문제로 인해 북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부와 정치를 강의하는 학교도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강의도 8%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강의 현황 분포는 해외의 한국학 발전이 아직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강의가 적은 것은 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한국학 교원의 전공분포를 같이 조사해 본 결과,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가 적은 것보다는 해당 주제를 강의할 수 있는 교원의 부족이 주된 원인임을 보여준다.

<그림 II -6> 한국학 교원의 전공분포 현황

(단위: %)



<그림 II-6>과 같이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한국학 교원의 분포를 보면 주로 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문학, 역사학 전공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통일공공외교와 관련된 남북관계와 통일 등의 강의를 위해서는 정치학 혹은 국제관계학 등의

전공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해외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에는 이 방면의 전공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학 전공자가 한국학 프로그램에 있다고 답한 15개 학교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중도 눈에 띈다. 미주리 대학, 조지워싱턴대학,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웨슬리안대학 등 미국의 대학과 영국의 캠브리지대학 등 주로 영미권과 유럽 대학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 또한 지금까지 공공외교가 한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 지역에 치중해온 결과로 보인다.

나. 해외 한국학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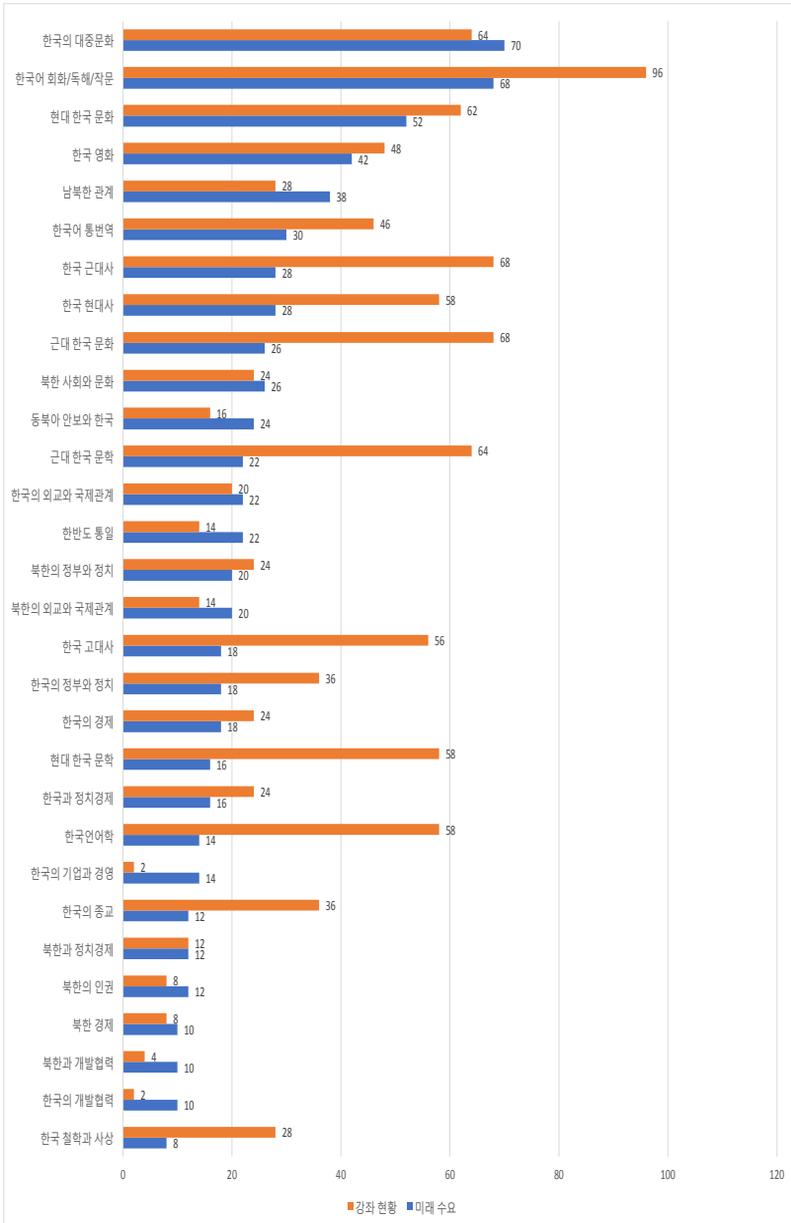
응답 내용 중 해외 한국학 수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응답자는 수요 증가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 어문학 중심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 수의 증가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매력 증가가 문화,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대학원 전공으로 세부 전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북한에 대한 연구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언어와 문화 관련 강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등 공공외교, 사회 문제, 기업 문화, 한반도 전반에 대한 지식, 북한 관련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강의에 대한 수요를 추가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림 II-7> 한국학 강좌 수요 증가 예측과 현황 비교

(단위: %)



복수응답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한국관련 강의에 대해 질문한 결과와, 현재 한국학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강의의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그림 II-7>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어, 그리고 현대 한국 문화 및 한국 영화 등의 강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학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의 경우 이미 70%의 학교에서 해당 강좌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한국어 회화 강의의 경우 거의 전부인 96%가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다. 한국 영화 및 현대 한국 문화 같은 경우도 각각 48%, 62%의 학교에서 이미 강의되고 있는 내용이라 이러한 문화 및 언어 관련 강의의 경우 양적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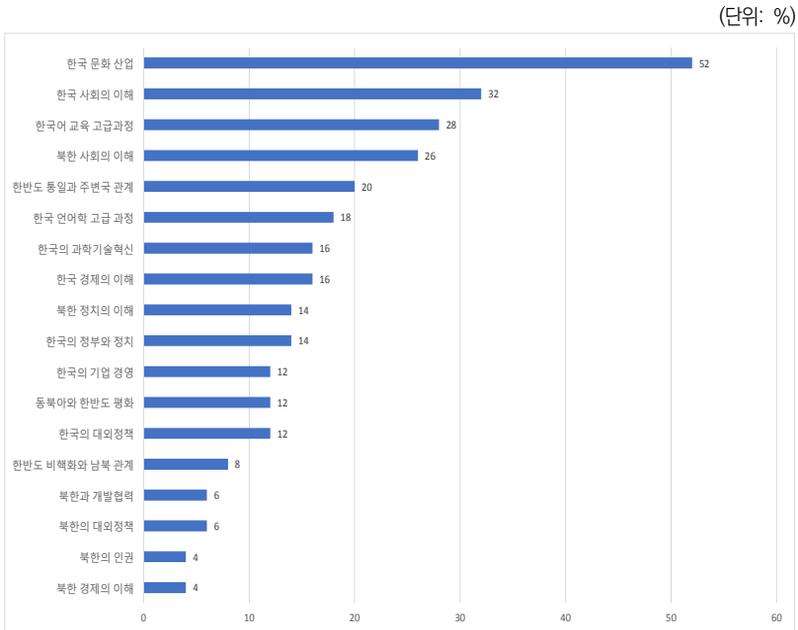
그러나 남북한 관계(수요 증가 38%, 강좌 현황 28%), 북한 사회와 문화(수요 증가 26%, 강좌 현황 24%), 동북아 안보와 한국(수요 증가 24%, 강좌 현황 16%), 한반도 통일(수요 증가 22%, 강좌 현황 14%), 한국의 외교와 국제관계(수요 증가 22%, 강좌 현황 20%) 등의 강의는 현재 강좌가 제공되는 비율에 비해 미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즉, 한국 대중문화의 약진에 힘입어 외국의 젊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양적 수요가 늘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해외의 한국학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일과 남북한 관계 관련 강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강좌와 별개로, 자신들의 학교에서 앞으로 추가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강좌를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질문하였다.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반복한 것은, 앞의 수요 증가 예상이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예상이었다면, 이 질문은 한국학 프로그램이 설치된 그 학교의 직접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림 II-8>의 그래프와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내용과 비슷했는데, 한국 문화 산업 관련 강의가 추가개설되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2%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해(32%), 북한 사회의 이해(26%),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관계(20%), 북한 정치의 이해(14%)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8> 추가개설이 필요한 과목



이상의 분석에서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와 관련한 강좌의 양적 증가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학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한국 사회와 남북관계, 남북한의 정치 등에 대한 강의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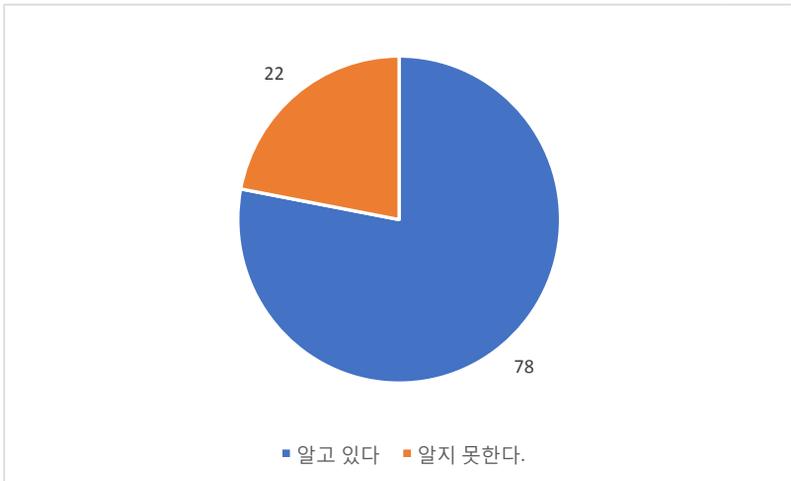
다. 해외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한국학의 발전에 정부의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공공외교 노력이 이어져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 정부 주도의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활용도,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였다. 우선, 해외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그림 II-9>와 같이 78%의 학교에서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11개 대학(22%)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9> 해외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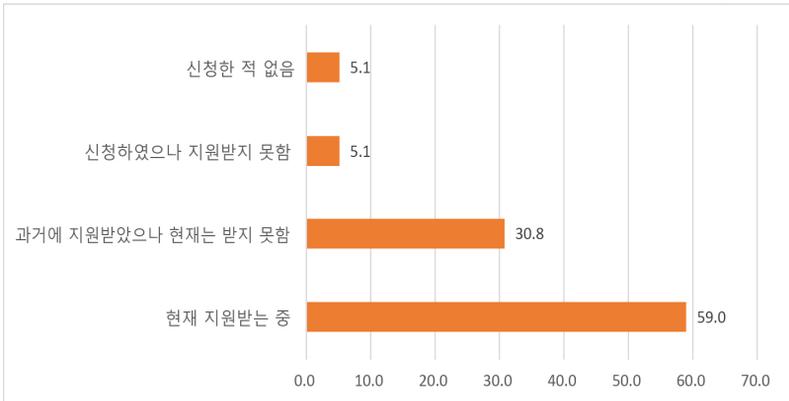
(단위: %)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 한정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 공모에 응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림 II-10>에서 나타나듯이 총 39개 기관 중,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23개(59%)였는데, 이를 설문에 응한 총 50개 기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절반이 약간 안 되는 46%의 기관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2개의 학교(30.8%)는 현재는 지원이 끝났지만 과거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다. 신청한 적이 없거나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 뽑히지 못한 경우는 각각 2건(5.13%)씩 조사되었다.

<그림 II-10>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신청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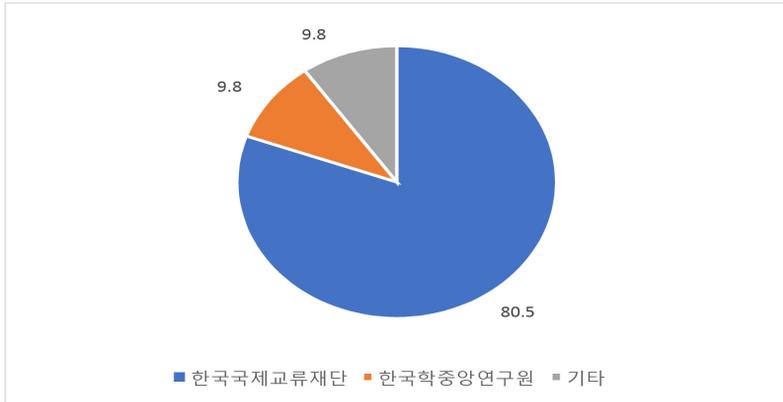


이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해외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그 운영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조사결과가 해외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해외 대학의 자체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한국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는 짐작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한국에 대한 급증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의 기반이 아직까지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더욱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학의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II-11> 지원기관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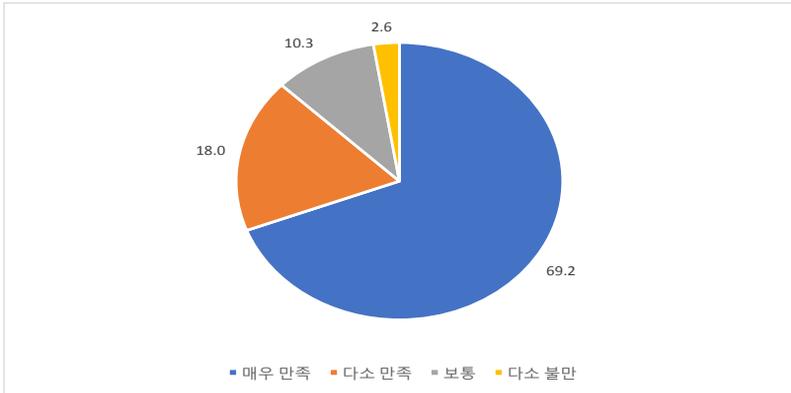
해외의 한국학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II-11>의 결과처럼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해 본 경험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대다수(80.5%)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답한 기관은 9.8%(4개 대학)에 그쳤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해외학자들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로 한국학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맡고 있다.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별개의 공공외교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업무를 병행해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분포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주로 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는 반면 연구 기능은 아직까지는 취약한 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I-12>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그림 II-12>와 같이 한국학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매우 불만)로 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으며, 전체 응답의 69.2%가 매우 만족을, 그리고 다소 만족이 18%에 달해 90% 가까운 응답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비록 매우 소수였지만 불만족스럽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에게 불만족의 이유를 물었을 때, “지원 분야 협소”를 택한 응답이 3건 조사되었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택한 응답이 1건 있었다. 여기서 지원 분야 협소를 선택한 응답은 비록 그 숫자는 적었지만, 앞으로 폭 넓은 분야에서 한국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관식 문항으로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을 제출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이에 는 지속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개별 강좌보다 학과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환경과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그 복잡한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국 국민의 예산이 소모되는 정책인 만큼,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환류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학 지원이 학과 전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수혜 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한국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원된 예산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으로 사용될 위험을 수반하며, 정부 예산의 속성상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방식의 지원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담당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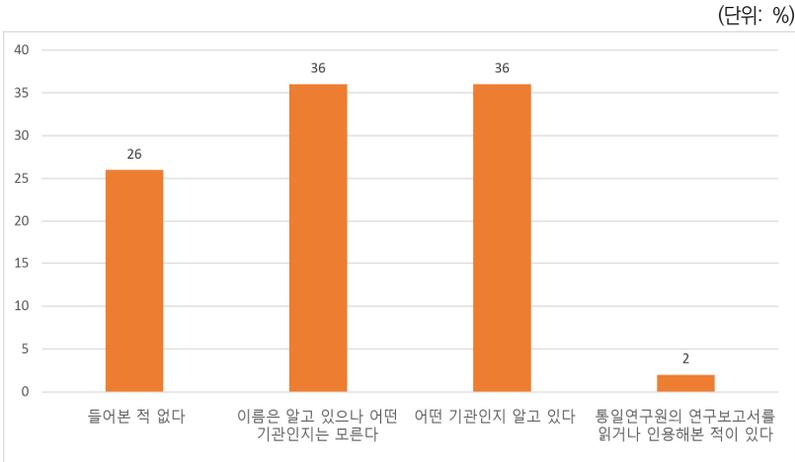
라. 통일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

통일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통일연구원의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림 II-13>과 같이 전체 응답의 26%는 통일연구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36%는 이름은 알고 있으나 어떤 기관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즉,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통일연구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매우 모호한 인상 수준의 인지만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였고,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읽거나 인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단 한 건이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및 통일연구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 유일한 국제 연구원으로, 그동안 활발한 연구 및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다. 2019년에 발간된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세

계 국책연구기관 중 59위로 평가되고 있다(McGann 2020, 181). 이러한 통일연구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이 수행해온 역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통일공공외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주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림 II-13> 통일연구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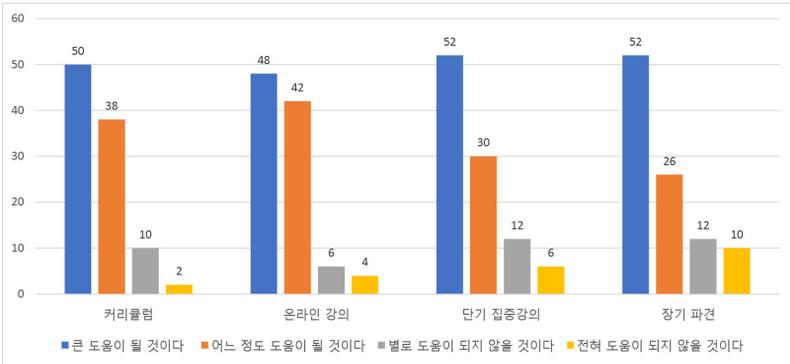
그렇다면 통일연구원이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기관의 지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 정책을 모델로 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다.

- (1) 통일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및 북한과 관련된 커리큘럼 및 교과서, 강의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

- (2) 온라인 세미나 혹은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
- (3) 1~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통일연구원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특강을 제공하는 방식
- (4) 1학기 혹은 1년 단위로 강사를 파견하여 장기 체류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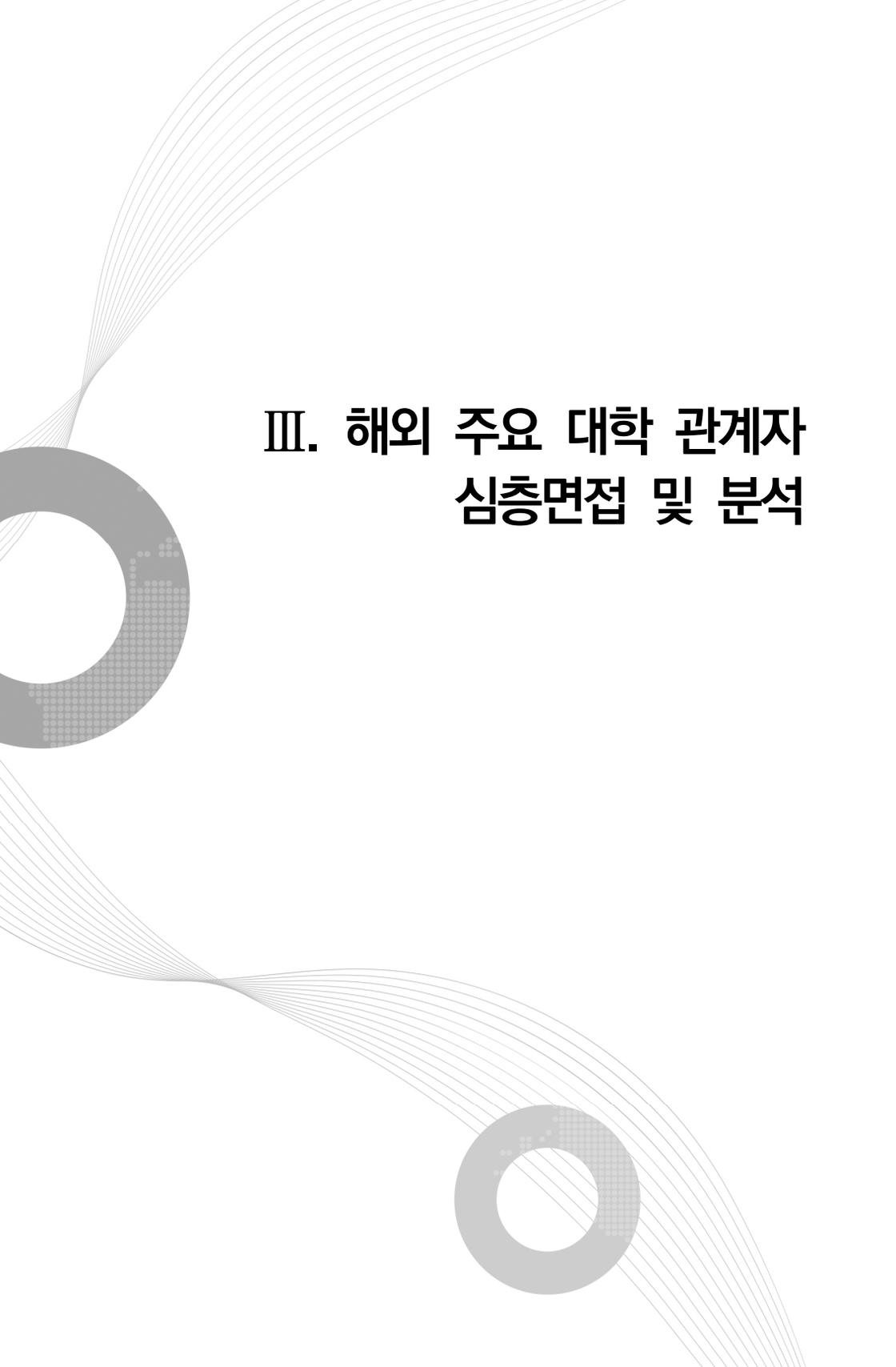
<그림 II-14> 통일공공외교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평가

(단위: %)



각 지원방안에 대한 호응은 모두 매우 높았다. <그림 II-14>는 통일공공외교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강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문에 참여한 50개 기관 중 45개 기관에서 온라인 강의 방식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장기 파견 방식이었다. 전혀, 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22%였고 긍정적인 응답은 78%였다. 이 설문 하나만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다른 방안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커리큘럼 및 강의자료 개발 지원, 단기 집중강의 지원 등의 방안에도 80%를 넘는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On the left side, there ar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elements. The upper one is a thick grey ring with a white center, and the lower one is a smaller, similar ring. Both rings have a fine grid of small dots on their right-hand side, creating a textured effect.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modern, with a focus on geometric shapes and subtle patterns.

Ⅲ. 해외 주요 대학 관계자 심층면접 및 분석

1. 심층면접 대상

지역별 주요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의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통계 및 주요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일정 수준의 저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대학한국학현황 통합검색’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사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계획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국가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직위	일시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	응우옌 티 푸옹 마이 (Nguyen Thi Phuong Mai)	한국학부 학부장	2021.10.15.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이은정	한국학과장 겸 동아시아대학원장	2021.10.15.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해외한국학지원실장	2021.10.29.
인도 네시아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에바 라티파 (Eva Latifah)	인문학부 한국어문화프로그램 학과장	2021.11.1.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소냐 호이슬러 (Sonja Haeussler)	아시아중동터키학과 한국학 교수	2021.11.4.
영국	세필드대학교	최덕호 (Deokhyo Choi)	동아시아학과 교수	2021.11.12.
이탈리아	로마사피엔자대학교	안토네타 브루노 (Antonetta Bruno)	동방학연구소장	2021.11.15.
일본	도쿄대학교	기미야 타다시	한국학연구센터장	2021.11.22.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윤상석	아시아슬라브어학과 교수	2021.11.29.
독일	본대학교	강성운	한국학과 연구원	2021.11.29.
멕시코	나야리트차치대학교	마리아 카르멘 (Maria del Carmen)	한국학과장 겸 한국학센터장	2021.12.8.

심층면접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접자들은 소정의 자문사례비를 지급받았고, 면접 내용이 보고서에 인용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사전 동의과정을 거쳤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학 진흥 사업이 활발히 펼쳐진 바 있는 기관 및 해외 한국학을 담당하는 주요 연구자를 참고하였다(고찬유 2021; 백성호 2021; 이울 2021a, 2021b; 이현수 2021; 고미혜 2021; 한국국제교류재단 2021.8.24.; 이현경 2018; 강성철 2018a, 2018b; 박혁진 2016;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9.23.). <표 III-2>는 이 기관의 학생 및 교원 현황을 보여준다.

<표 III-2> 심층면접 대상기관 현황

기관명	소속 단과대학/학부	개설연도	교원의 수*	수강생 수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	한국학부	1994	29명	학부: 554명
베를린자유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동아시아 중동학과	2005	15명	학부: 303명 석사: 30명 박사: 11명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문학부 한국어문화 프로그램	2006	11명	학부: 184명
스톡홀름대학교	인문학부 아시아중동터키학과	1968	4명	학부: 241명 석사: 10명 박사: 2명
세필드대학교	동아시아대학 한국학 전공	1993	5명	학부: 121명 석사: - 박사: 5명
로마사피엔자대학교	동방학연구소	2001	7명	학부: 320명 석사: 20명 박사: 1명
도쿄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 한국학 전공	2000	2명	학부: 140명 석사: 6명 박사: 15명
아이오와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아시아슬라브어문학과 한국학 부전공	2016	5명	학부: 77명
본대학교	철학부 아시아학 연구소 / 일본한국학과	1972	4명	학부: 155명 석사: 23명
나아리트자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한국학과	2013	6명	학부: 44명

주: * 한국학 교수진으로 교수, 강사, 조교 포함

2. 해외 한국학의 현황

가. 지역학의 한 부분으로서 해외 한국학 위상의 증대

심층면접의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매력, 그리고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취업의 기회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학생 수요를 끌어올리는 공통 요인으로 발견되었는데, 한국학의 양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해외 한국학이 단순 호기심이나 문화적 매력에 의해서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학의 한 분야로서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학문 분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 전공 입학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상승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학의 경우, 한국학부는 대학입학 시험 만점을 받아야 입학이 가능한 학부로 신문방송학과나 국제관계학과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학부 중 하나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의 결과 지역학에 있어서도 2021년 처음으로 일본학부보다 더 높은 입학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상자 III-1>은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 관계자 심층면접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글상자 Ⅲ-1> 지역학으로서 한국학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질문) 호치민 인문사회대 또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학계에서 생각하시는 수요 증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아무래도 저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취직 면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화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이번엔 대학 입학시험 결과를 보면 특히 호치민인사대 한국학부 같은 경우 30점 만점을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한국학부도 인사대 같은 경우 신문방송과나 국제관계학과 그리고 영문과처럼 전통적으로 인기 많은 학과에 이어서 거의 톱파이브에 들어가는 들어가기 힘든 학부 중 하나로 됐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입학 점수가 일본학부를 넘어섰거든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집중되어서 그런지 그쪽에 좀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대하고 하노이외국어대가 있는데 하노이대는 한국학과에 들어가는 성적이 학교 전체에서 제일 높고요. 하노이외국어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톱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응우옌 티 푸옹 마이(2021.10.15.).

한국학의 위상 증가는 한국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우수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이 한국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함으로써 해외 한국학에 대한 교육 수요와 수준이 모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와 같이 학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베를린자유대이나 스웨덴 스톡홀름대와 같이 대학원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이다. <글상자 Ⅲ-2>는 독일 베를린자유대 심층면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글상자 Ⅲ-3>은 스웨덴 스톡홀름대 관계자 심층면접 일부 내용으로 두 대학 모두 대학원 과정으로 한국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높아지는 학생 수요를 경험하고 있는 곳이다.

<글상자 Ⅲ-2> 증가하는 학생 수요 관련 발췌내용(독일)

질문) 학생의 수요는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응답)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경쟁률이 높아져서요. 저희 올해 커트라인이 1.8로 올라갔거든요. 독일의 1.8이라는 것은 의대, 정치학과 다음이에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제가 2008년에 왔을 때처럼 커트라인이 없이 지원만 하면 다 받았어요.

그때 학생들의 아버투어, 이제 고등학교 대학입학 자격시험 성적을 보면 제가 이런 점수도 있어? 이것도 점수야 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학력고사는 옛날에 320점 만점이었을 때거든요. 320점 만점에 100점이 안되는 점수대의 아이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떨어지죠. 몇 년 전에도 저희가 들어오는 학생들이 평균 수준의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높아져가지고 지금 일정대로 진입했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출처: 이은정(2021.10.15.).

<글상자 Ⅲ-3> 한국학 학생 비중의 증가 관련 발췌내용(스웨덴)

질문) 스웨덴의 한국학 현황의 변화 양상은 어떻습니까?

응답) 스웨덴의 한국학은 일본학이나 중국학과 달리 스톡홀름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국학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으로 일본학을 포함하여 시작되어 현재에 분화되어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동아시아학에서는 중국학 수요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본학을 거쳐 한국학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학의 학생이 400여 명 수준이라면, 일본학은 300여 명 정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온라인 수업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스톡홀름 이외 지역에서 한국학에 등록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국학 수요 증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학의 경우 스톡홀름 이외 지역의 학생이 30%, 일본학은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처: 소냐 호이슬러(2021.11.4.).

나.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는 선호의 영향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고, 한국과의 교역에 적극적인 국가의 경우, 한국학에 대한 수요 증가의 주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대사관,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기관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베트남이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에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일반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한국 기업의 관리직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업무 지시를 전달하는 등 중간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글상자 Ⅲ-4>는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에서 취업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글상자 Ⅲ-4>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구직 관련 발췌내용(멕시코)

질문) 한국학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중략> 학생들이 회사에서 행정직에 취직함과 동시에 번역과 통역이 주 업무이자 직업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경우를 예로 들면, 현지 근로자들은 생산 라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학 졸업생들은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마리아 카르멘(2021.12.8.).

그 밖에 인도네시아국립대의 경우에도 졸업 후 한국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임금 수준을 기대하거나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어 과외, 한국 식품 판매 등 문화와 관련한 일차적인 수요에 따라 한국학이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상자 Ⅲ-5>와 같이 인도네시아국립대의 경우에도 현지 기업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상자 Ⅲ-5> 현지 한국 기업 선호의 영향 관련 발췌내용(인도네시아)

질문)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학의 인기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응답) 우선 한류의 영향이고 그 다음은 현지 한국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현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유학가기 위해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현지에서 한국과 연결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팔거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로 취업하거나 일을 하는 졸업생은 약 70% 정도라고 봅니다.

출처: 에바 라티파(2021.11.1.).

이와 같이 동남아 주요국과 멕시코 등 우리나라 현지 기업이 진출하여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서 중간관리직으로서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학의 학생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 한류의 영향과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관심 확대

일반적으로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해외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일반에 대한 관심, 특히 정치외교와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로서의 한국에 대한 전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의 경우 학부에서도 세부전공으로 문화보다 정치외교나 경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글상자 Ⅲ-6>의 내용은 한국에 대한 전공 수요가 대중문화에 대한 매력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 베트남의 사례를 보여준다.

<글상자 Ⅲ-6>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질문)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어과를 나와서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역사라든가 한국의 정치 또 남북관계 같은 것은 취업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응답)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한국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케이팝 좋아해서 들어왔다. 아이돌 좋아해서 보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한국 자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된 부분은 무척 반갑게 발견할 수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놀라시겠지만 아까 세 가지 전공 중에 언어, 문화 사회 그리고 정치외교 경제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번에 절반은 정치외교 경제 조금씩 선택했고. 나머지는 조금씩 문화 들어가고 조금씩 문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놀랐구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가볍게 케이팝, 아이돌 이런 정도 관심으로 들어온 게 아닌 현상이 저희 학교에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출처: 응우옌 티 푸옹 마이(2021.10.15.).

대학원 수준의 교육 체계가 자리 잡은 경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매력은 대학 입학 이전 청소년기에 이미 형성된 이후 대학 입학 시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학의 제반 이슈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의 분단과 비교하면서 남북한 문제를 연구하려는 대학원 과정 수요가 높고, 이를 위해 학부 때 기초부터 역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진로의 문제로서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과 더불어서 다양한 학문의 한 분과로서 선택되고 또한 선호도도 높은 학과로서 한국학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과학 측면에서 해외 한국학 수요는 현지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독일 베를린자유대와 달리 어문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웨덴 스톡홀름대의 경우 한국학 출신을 위한 시장이

적고 최근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학으로서의 해외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역량과 기관 차원의 관심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라. 지역별 편차의 존재

이처럼 한국학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교육 역량과 한국학 저변이 탄탄한 대학의 경우 지역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학이 인지될 정도로 성장한 반면, 저변이 약한 지역의 대학은 교수자의 역량 및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대학의 역량이 증대되고, 일정 수준 교육 역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한국학에 대한 수요도 함께 맞춰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베트남, 멕시코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중부나 이탈리아와 같이 한국학의 저변이 약한 선진국에서도 교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로마사피엔자대학의 한국학은 짧은 역사와 적은 교원 수로 인해 학생들의 직업 전망이 밝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동기 부여도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학생 수요 증가로 대학에서 한국 관련 강좌가 증가하였음에도 나타난 현상으로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은 신진 학자 양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상자 III-7>은 이탈리아 로마사피엔자대학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글상자 Ⅲ-7> 해외 한국학 교원 부족 관련 발췌내용(이탈리아)

질문) 한국학의 성장 추세와 박사과정생의 직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응답) 그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젊은 한국학 학자들의 커리어에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중부 유럽과 비교할 때 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유는 이탈리아의 한국학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원의 수도 매우 적습니다. 학생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의지를 가져도 대학 내 한국학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출처: 안토네타 브루노(2021.11.15.).

해외 한국학 인력이 역으로 한국으로 유출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의 경우 교원 인력의 브레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으로 교원 연수를 떠난 뒤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무려 4건이 발생함으로써 대학 본부에서 한국으로의 교원 연수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한 것이다. 이는 많은 개발협력 사업에서 저개발국 공무원의 한국 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레인 유출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수요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해외 한국학의 지원 사업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초급 인력의 경우에 현지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상자 Ⅲ-8>은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의 교원 역량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한계를 보여준다.

<글상자 Ⅲ-8> 현지 역량 강화 관련 발췌내용(멕시코)

질문) 나야리트자치대에는 대학원 과정 혹은 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응답)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강의 개설 지원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는 연구 중심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젊은 교원을 한국으로 석사학위 연수를 보내서 프로그램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수자들이 한국에서 혼인을 하는 등 멕시코로 귀국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4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원 인력에 대한 손실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학 본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중지하였습니다. 중년의 교원을 한국으로 연수보내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현지에서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처: 마리아 카르멘(2021.12.8.).

또한 일본의 경우 악화되는 한일관계가 한국학에 대한 수요에 상당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학생에게 여전히 한반도 문제는 주변국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이 문제에 대한 일부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상자 Ⅲ-9>는 한국에 대한 매력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도 한일관계 악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상자 Ⅲ-9> 한일관계의 영향 관련 발췌내용(일본)

질문) 기타 지역학과 비교할 때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지요?

응답) 물론 여러 가지 예컨대 북한에서 뭔가 핵심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의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나라의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문제로서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역시 학생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전에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좀 가졌지만 요새는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냐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우수한 사람들은 중국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매력 있어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을 조금 경계하면서 골치 아픈 친구하고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예전에는 매력이 있고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새는 한일관계가 좋지 않고 북한 문제는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한국학 연구로 모으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출처: 기미야 타다시(2021.11.22.).

그 밖에 전통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적고 보수적 학풍을 가진 지역의 경우, 대학 본부 차원의 낮은 관심으로 한국학과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 중부의 경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주류 문화의 일부로 점차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 관계자가 이를 일시적 유행으로 여기는 등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교원 확보와 연구비 지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글상자 Ⅲ-10>은 보수적 지역 사회와 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사례를 보여준다.

<글상자 Ⅲ-10> 보수적 지역 사회와 학계 관련 발췌내용(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질문)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현지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응답)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세계가 한국에 열광을 하고 너도 나도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수업을 듣고 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서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반응이 느리고 보수적입니다. 예전보다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업을 듣거나 하는 걸로 모두 이어지는 비율은 동부나 서부에 비하면 아주 낮습니다.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조금 높게 인식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4~5년 전만해도 K-Pop을 듣는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내세울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몰래 듣는 B급 문화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인식이 조금 사라진 것이지 너도 나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광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강좌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제 느낌으로는 한 30% 정도입니다. 그냥 일반 학생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아는 정도이지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략) 한계는 아무래도 학교 측의 어떤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노력을 한 것은 아이오와학교 측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으니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수요를 보여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학생도 많이 늘려 보았습니다. 이벤트도 크게 하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관심이 없고,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장이라든지 디렉터 급의 사람들

이 이쪽에 눈을 좀 뜨고 학생들한테도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인식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여전히 낙후 된 아시아에 있는 그냥 그런 나라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출처: 윤상석(2021.11.29.).

아이오와대학처럼 한국과 한국학에 대한 대학의 낮은 인지도와 관심은 한국의 공공외교 노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해외 대중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것이 해당국가의 자체적인 한국학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해외 한국학의 문제점

가. 교재 및 자료 접근성 부족

현지에서 접근 가능한 교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영문권에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관련 분야의 학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글상자 III-1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학이 주요 학과로서 자리 잡은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의 경우에 교원의 우수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에서 도서관 및 온라인을 통한 학술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여 한국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한국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학에 쉽게 취직이 되는 편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학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학교가 드물어서 계속 한국

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호치민 대학의 경우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학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으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만한 고급 커리큘럼과 강사진, 교재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글상자 Ⅲ-11> 교재 개발 필요성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질문) 한국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때 계획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네. 저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정치, 역사에 대한 교재 개발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 전공하신 선생님은 아직 박사 논문 쓰는 중이어서 혼자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전공 교수님들과 협력하는 협동작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측은 저희 베트남 측 자료 찾고 그다음에 한국인 교수들 하고 같이 일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젊은 교수들이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공동연구 사업이 꼭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학과가 생긴 지 몇 년 되었는데 아직 교재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생, 저희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여기서 자료를 다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돌아와서는 진짜 거의 끊겼어요. 여기는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연구원에서 일을 좀 같이 지원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응우옌 티 푸응 마이(2021.10.15.).

이러한 한국학 관련 콘텐츠의 문제는 독일 본대학교에서도 제기되었다. 특히 <글상자 Ⅲ-12>에서 드러나듯이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이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상자 Ⅲ-12> 연구에 필요한 자료 부족 관련 발췌내용(독일 본대학교)

질문) 지금 말씀듣기로는 교원이 부족하고 북한이라든가 통일 관련된 전문적인 강좌 같은 게 개설된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학생들이 정보를 어떻게 구해서 논문을 쓰나요?

응답)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가르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통 독일어로 나온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요약해서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를 쓰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뭔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하고 이런 학술적인 글쓰기를 배워야하는데 그냥 요약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OECD 자료나 UN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지만 배경지식 등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요는 책을 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놀랐던 점은 굉장히 기본적인 해외 한국학 저널 같은 것도 구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도서도 구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저널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타 학교 동료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책을 구입하라는 것이 학교의 입장인데 독일 세관법이 까다로워서 책을 구입하면 절차가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싶으면 학생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출처: 강성운(2021.11.29.).

나. 교원의 수와 역량 부족

대체적으로 심층면접 대상기관에서는 현지 교원의 수와 역량 부족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경쟁률과 학생 수요를 충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를 수용할 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셰필드대학의 경우 한국학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부족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충분한 연구비 보장 등이 어려워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매년 학생 입학 수는 증가하면서 최근 20명 이상 정원이 증가하였다. <글상자 Ⅲ-13>은 영국 셰필드대학의 교원 확충 문제를 보여준다.

<글상자 Ⅲ-13> 교원 확충 문제와 관련한 발췌내용(영국)

질문) 셰필드대학의 한국학 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답) 영국에서 한국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이고 셰필드대학은 한국학에 있어서 최고 등급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셰필드대학에는 4명의 교원뿐이고 모두 주니어 강사입니다. 예전에는 시니어 강사와 교수급 강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현황은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시니어의 일부는 은퇴를 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교원은 역사학자, 인류학자, 음악학, 정치학을 전공으로 합니다. 현재는 시니어 급 강사를 고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70명의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50명의 학생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70명의 신입생이 2년차로 접어들면 40여 명, 3년차로 접어들면 20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변경하는 것이죠. 특히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출처: 최덕효(2021.11.12.).

또한 교원의 부족은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기간 내에 성과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국가에서도 학교의 지원 여부나 학과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베를린자유대학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원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지만 본대학교는 소규모 학과로 증가하는 학생 및 연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 해외 한국학 파견 교원의 한계

한국 정부의 다양한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는 파견 교원을 지원할 문제점도 제기된다. 해외 한국학 파견 교원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교원이 당면하는 문제점을 기초 지식 부족의 문제, 중복 수혜 문제 그리고 자료 제공의 문제 등으로 지적한다.⁵⁾

첫째, 현지 교원의 기초 지식 부족 문제이다. 해외 한국학 파견 교원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등 개별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지의 학생 역량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 지식의 부족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 남북한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을 가져오는 역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초 지식의 부족 문제는 구공산권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들 국가의 경우 한국에서 공유되는 지식뿐만 아니라 구공산권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전해진 자료를 사용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Korea'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향된 자료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복 수혜 불가로 인한 활동의 제약 문제이다. 파견 교원의 경우 한국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한국학 지원 예산을 중복 수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한국학 교원이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오히려

5) 해외 한국학 파견 교원과의 인터뷰(2021.12.8.).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부 교원의 경우 현지에서 한국학 관심 제고를 위해 대외활동을 계획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예산이 없어 사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한국학 파견 교원은 한 학기당 2개의 강의를 수행하는데, 중복 수혜의 불가능 그 외의 시간을 현지 한국학 진흥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교원의 경우 학생들의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개발을 위해 교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현지 해외 한국학의 증진이 교원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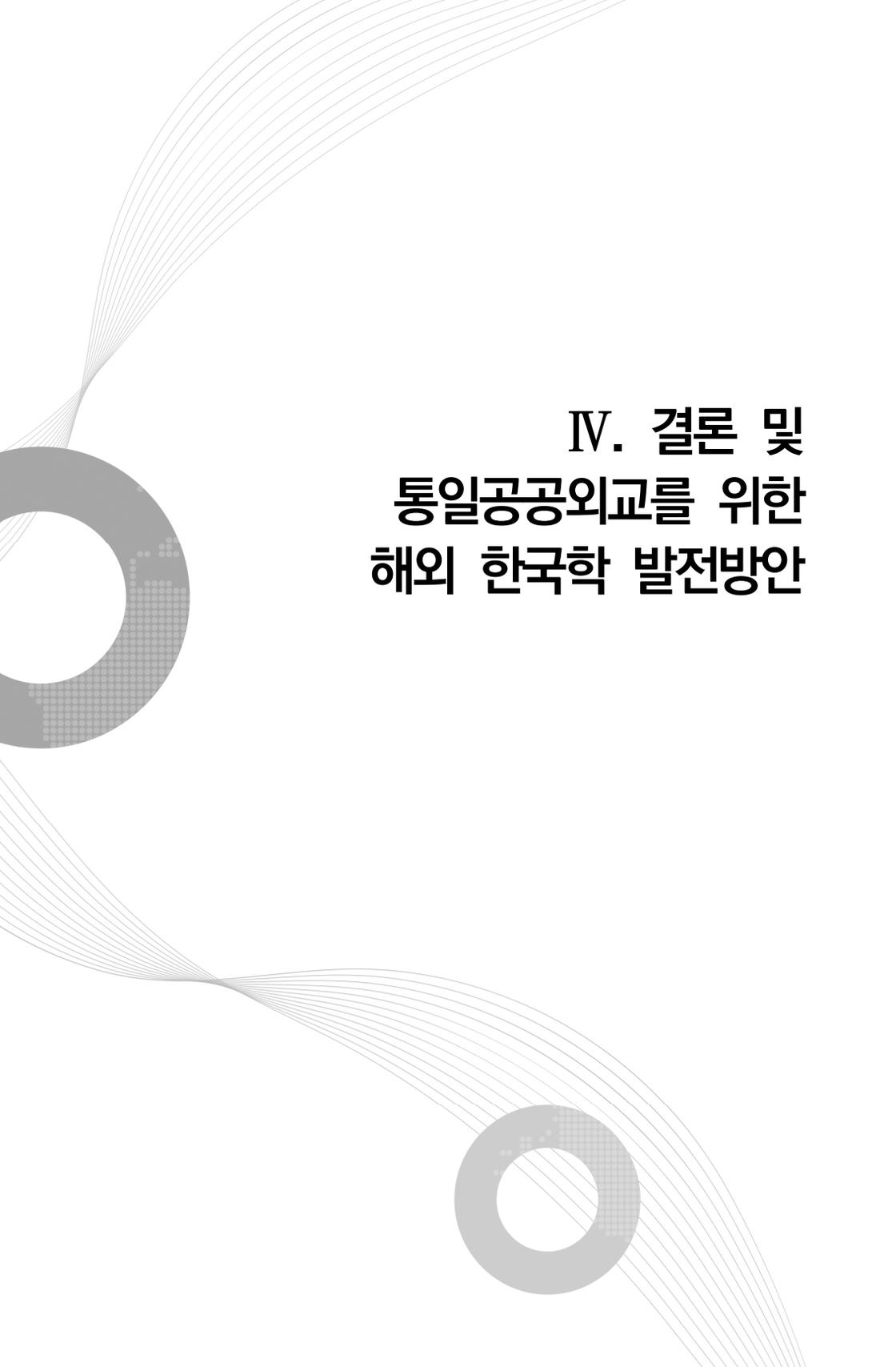
셋째, 자료 제공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이다. 파견되는 현지 국가의 언어와 학생의 외국어 능력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학습 자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높고 대학 입학 이전에 영어 교육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권 국가에서는 영어로 제공되는 강의 자료를 큰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서구권에서는 많은 경우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현지어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다만 베트남과 같이 한국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언어 능력도 기초적인 역량을 갖춘 경우에는 한국어 강의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라. 해외 한국학 지원의 지속성 부족

해외 한국학 지원에 있어서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해외 한국학 지원은 일정 수준의 기관 역량이 갖추어진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저변이 낮은 국가는 정책적 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가끔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성장형 모델을 통해 기관 역량을 씨앗형 그리고 중핵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지속성 문제는 결과적으로 현지 해외 한국학과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한국의 전문가들의 한국학 지원 사업의 효능감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 교원의 경우 단기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강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해외 한국학 파견 교원의 경우 1년 내지 2년의 단기 계약을 통해 파견된다. 이는 현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파견의 형식과 필요한 학문 분야가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On the left side, there ar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elements. The upper one is a thick grey ring with a white center, and the lower one is a smaller, similar ring. Both rings have a fine grid of small grey dots on their right-hand side.

IV. 결론 및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해외 한국학 발전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해외의 한국학은 최근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소프트파워가 성장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90년대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거의 동시에 민주화되면서 당시 북방정책의 결실로 러시아 및 동유럽,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국내의 여러 대학들이 앞다투어 노어노문학과를 개설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후 러시아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대학에서 노어노문학과가 폐지된 적이 있었다.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한국학의 씨앗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K-Pop으로 상징되는 한류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없다. 대중문화의 속성상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한류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한류의 인기에 안주하여 한국학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90년대 이후 사라져버린 많은 한국의 노어노문학과들처럼 해외의 한국학 과정들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은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해외의 한국학이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 관심이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통일 및 북한, 그리고 한국의 외교정책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의 도움 없이도 해외 한국학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공외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주로 한국학 강의 교원에 대한 지원 및 한국학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한국학의 콘텐츠 생산까지는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 정책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인력과 정보,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통일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원들이 협력한다면, 훨씬 내실 있는 공공외교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성과 확산, 그리고 통일 및 대북정책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의 부수적 성과를 통해 통일연구원의 위상 및 본래의 연구업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공공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의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연구

통일공공외교를 위해 현재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근 내용이 반영된 교재 개발 혹은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의 한국학 진흥을 위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나 독일 본대학교와 같이 한국학에 대한 연구 수요가 높은 곳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교원이 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재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연구를 이어갈 자료에 대한 접근이 떨어지면서 한국학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동연구도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한국학 교원이 교재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일공공외교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과 협력 대상국의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글상자 IV-1> 베트남의 심층면접 내용은 이와 같은 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다.

<글상자 IV-1> 공동연구를 통한 교재 개발 관련 발췌내용(베트남)

질문) 한국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때 앞으로 더 계획하시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또 필요하신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응답) 네. 저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정치, 역사에 대한 교재 개발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 전공하신 선생님은 아직 박사 논문 쓰는 중이어서 혼자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전공 교수님들과 협력하는 협동작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측은 저희 베트남 측 자료 찾고 그다음에 한국인 교수들과 같이 일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젊은 교수들이 좀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공동연구 사업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출처: 응우옌 티 푸옹 마이(2021.10.15.).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단지 북한과 통일이라는 주제를 넘어, 다양한 국제적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분단과 통일이라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며, 식민지 경험 및 중국·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등에서 지금까지도 통일정책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통일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같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은 없으며, 국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베트남 연구자들과 적절한 연구주제를 잡아 국제 공동학술연구를 진행할 경우, 베트남의 한국학 진흥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양국의 학술네트워크 강화 및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 등의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현대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요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주요 한국학의 논문을 영문 등 국제언어로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주제별로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

또한 이러한 종합 웹사이트는 통일공공외교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주요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므로 필요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그리고 여러 관계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강의 제공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이미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외의 한국학 과정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그 강의내용은 한국어,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등으로 폭이 좁은 편이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수요와 이에 발맞추어 다양화되고 있는 관심의 범위를 온전히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통일연구원 등 정책연구원의 정책전문가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현황을 빠르게 전달해 준다면 현지 강사 파견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일공공외교 활동이 될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경우 매년 강의 주제가 바뀌는 등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평가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지닌 온라인 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6) 해외 한국학 파견 교원과의 인터뷰(2021.12.8.).

현지 기관의 복잡한 행정절차나 파견 교원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교원 모집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일 수록 온라인 강의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로마사피엔자대, 독일 베를린자유대, 인도네시아국립대 등은 단기 강의를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새로운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글상자 IV-2>는 온라인 강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여준다.

<글상자 IV-2> 온라인 강좌 관련 발췌내용(이탈리아,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어떠한 형태의 교류도 사피엔자대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커리큘럼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학점을 제공하게 되려면 대학 본부의 승인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코스인 경우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독일) 온라인 클래스는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이예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도 연세대학교도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고려대학교도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지 못하는 분야를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대학원 수준의 강의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온라인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간의 교류를 통해 현지에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안토네타 브루노(2021.11.15.); 이은정(2021.10.15.); 예바 라티파(2021.11.1.).

그 밖에 미국 중부의 경우, 이미 갖추어진 온라인 강의 체계에 협력하여 통일공공외교 전문가가 현지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통일 및 남북한 관계에 관한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대학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부족한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학을 미국 중서부 대학의 학생 수요에 맞추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국 중서부 대학 리그인 'Big 10'의 한국학 교수들이 연계된 BTAA(Big Ten Academic

Alliance) e-School은 동일 시간대의 다른 지역, 다른 대학, 다른 학과의 한국학 교수가 참여하여 미국 중서부의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e-School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형성된 BTAA e-School 컨소시엄은 기존의 원격 학습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캠퍼스를 기반으로 가상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다양한 한국학 강좌를 파트너 대학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물리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일 및 남북관계 등을 전공한 교원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단기 파견을 통한 집중강좌 제공

단기 파견을 통한 여름 집중과정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예산상의 이유로 장기간 체류가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1~2주간의 단기 집중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름 코스의 경우 한국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계절학기 강의를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해외 한국학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계절학기 강의를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학기 정도의 파견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도 가능하다. <글상자 IV-3>은 일본 도쿄대의 단기 파견 강좌의 수요가 가능성을 보여준다.

방학 기간, 혹은 학기 중에 1~2주 정도의 집중 강의를 통해 한 학기 분량의 내용을 강의하는 이 방안에는 장기거주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강사 파견기관의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도 단기 파견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매우 높았다.

<글상자 IV-3> 단기 파견 집중강좌 관련 발췌내용(일본)

질문) 한국학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교류 형태는 무엇인가?
 응답) 일전에 통일연구원의 전문가께서 도쿄대에 오셔서 한 학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에게 아주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도쿄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 연구자만 모시는 게 어려워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정도였지만,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출처: 기미야 타다시(2021.11.22.).

4. 장기 파견을 통한 공동연구 및 지도

장기 파견은 현지 교원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통일과 남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통일공공외교 전문가와의 면담은 학위 논문 준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상자 IV-4>는 이러한 장기 파견의 효과성을 보여준다.

<글상자 IV-4> 장기 파견 관련 심층면접 발췌내용(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질문) 학생들의 수요나 또는 강의 수요에 비추어 더 필요하거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응답)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기초 수업에 들어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레벨은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로 커버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학부 3학년이나 대학원으로 갔을 때 실제로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기 독일에 있는 선생님들이 커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통일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민해야 될 부분들 무척 많잖아요,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문제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하고 비교하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70년대 긴장 완화 정책과 한반도 현재 정세와 연결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세미나들을 구성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파견해서 오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한 학기에 한 번만 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

제로 파견 선생님이 와 계시면 그 분야에 관해서 아이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옆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공외교는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서 한국 전문가를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계시면서 누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 아이들을 계속 지도를 할 수 있을 때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으니까 오시는 게 굉장히 좋죠.

출처: 이은정(2021.10.15.).

한국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수요가 크다. 특히 박사 논문 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정책전문가를 장기적으로 파견받기를 원하는 해외의 대학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한국학 프로그램들이 중국학이나 일본학 같은 역사도 오래고 이미 자체적인 지식 생태계가 구축되어 꾸준히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는 지역학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전문 연구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능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런 능력을 가진 해외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지원이 집중된 미국 등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기 파견 프로그램은 그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실행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고용휴직 등의 방식으로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장기 파견나가는 것은 이미 고용휴직 등의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등의 행정적 부담은 없다. 그러나 재정 확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장기 파견의 경우에는 세심한 준비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파견 전문가의 임금과 체류비용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그리고 파견기관 인력운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 또 통일연구원의 자체 연구진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안식년제도 등과 함께 운영하거나 외교부 혹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존 프로그램과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그곳의 연구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한국학 전공학생들을 직접 키워내는 것은 정책공공외교의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이미 장기 교환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통일공공외교 유관기관의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인턴십(internship)은 해외의 중요한 싱크탱크들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싱크탱크들은 인턴십에 참여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수는 무급 혹은 교통비 정도만 제공한다. 이는 학문후속세대들의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젊은 세대 연구자들에게 실제로 정책연구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거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싱크탱크의 인턴십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인턴십 경험이 향후 취업에도 매우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챌린저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 싱크탱크에서 인턴십을 가질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반해 한국 연구기관에서 글로벌 인턴십이 제공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국내외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통일공공외교와 관계있는 연구기관들이 해외 한국학 운영 기관의 학생에 인턴십을 제공하거나 교원에게 펠로우십을 제공함으로써 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안 또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대학의 많은 한국학 프로그램에서는 인턴십 혹은 교환학생제도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3학년 이상의 학생이 한국을 방문하여 1학기 내지 2학기를 지낸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을 방문한 이 학생들은 협정을 맺은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수준에서 머무르지만, 이들이 한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국을 잘 이해하는 해외의 한국학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미래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상자 IV-5>는 한국학 강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글상자 IV-5> 인턴십 관련 심층면접 발췌내용(영국)

영국) 통일연구원에서의 인턴십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분명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박사과정의 인턴십도 좋은 기회입니다. 일부 박사과정생이 안식년으로 비어있는 강의를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곳 학생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출처: 최덕효(2021.11.12.).

인턴십 혹은 펠로우십의 제공은 부족한 해외 한국학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경험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한국학을 공부한 이들이 귀국하여 자신들의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학 전공을 살릴 수 있다면 앞으로 해당 국가의 한국학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 그 나라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들에게 우호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통일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6. 젊은 해외 한국학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 및 발표 제공

해외 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의 연구가 자생적인 한국학 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로 성장한 이들이 한국학 후속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젊은 연구자들은 전공을 살리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취업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연구업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즉, 국제회의나 학회 등에서 이 젊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연구성과 확산을 넘어 연구자 개인의 업적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은 현재도 매우 활발하게 자신들의 연구성과 확산과 홍보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국제회의에는 이미 학술적인 성과가 증명된 기존의 학자들이 초청되어 토론과 발표를 맡고 있다. 물론 좀 더 학계의 영향력이 큰 학자들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제회의 중 일부를 차세대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발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역별로 국제회의를 조직하여 그 지역의 차세대 연구자들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과 국책연구원 연구자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본연의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차세대 한국학 전공자들이 연구업적 관리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학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들이 통일연구원이나 다른 국책연구원의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물가가 저렴한 국가의 연구자들은 공동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연구비가 이들의 생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수준의 학술회의를 넘어 한국 연구자들과 직접 연구하고 협력하는 경험은 이들에게 차원이 다른 경험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IT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연구협업은 매우 쉬워졌으며, 이전과 달리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구를 위한 회의를 할 필요도 없어졌다.

물론 국책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연구능력을 지닌 해외 연구자들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공공외교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연구성과 보다는 미래의 차세대 한국학 육성이라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임원혁. 2020. 『대미 지식정책 공공외교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세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2020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보고서』. 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
- 해외문화홍보원. 2020. 『2020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서울: 해외문화홍보원.

2. 기타자료

○ 신문/잡지

- 강성철. 2018a. “[한국학 현장 보고서] ④ 호찌민인사대 총장 ‘교수·교재 부족하다.’” 『연합뉴스』. 2018.5.31. <https://www.yna.co.kr/view/AKR20180530120300371> (검색일 2021.10.10.).
- _____. 2018b. “[한국학 현장 보고서] ⑦ ‘단독학과’ 한곳도 없는 말레이시아.” 『연합뉴스』. 2018.6.5. <https://www.yna.co.kr/view/AKR20180603045200371> (검색일 2021.10.10.).
- 고미혜. 2021. “멕시코 ‘한국학 거점’ 나야리트대에 한국학연구소 개소.” 『연합뉴스』. 2021.6.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42400087> (검색일: 2021.10.10.).
- 고찬유. 2021. “‘한국박사 1호’ 에바, ‘인니 여성에 대한 편견 깨길.’” 『한국일보』. 2021.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510590000680> (검색일: 2021.9.10.).
- 박혁진. 2016. “한국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졸업 후 진로가 막막해요.” 『시사저널』. 2016.11.1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725> (검색일: 2021.9.2.).
- 백성호. 2021. “출가 뒤 사랑에 빠진 韓스님, 하버드 나와 예일대 교수된 사연.” 『중앙일보』. 2021.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584#home> (검색일: 2021.9.5.).

- 이 율. 2021a. “14배로 불어난 베를린자유대 한국학 전공자…그뒤엔 그녀가 있다.” 『연합뉴스』. 202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0086000> (검색일: 2021.9.10.).
- _____. 2021b. “유럽에 부는 K웨이브…유럽 19개국 한국전문가 71% ‘한류 인기.’” 『연합뉴스』. 2021.3.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026900082> (검색일: 2021.9.10.).
- 이현경. 2018. “이탈리아 최초의 한국 자료실, 로마라사피엔차대학에 개설.” 『뉴스핌』. 2018.10.1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017000205> (검색일: 2021.9.10.).
- 이현수. 2021. “러시아 볼고그라드국립대에 한국학연구소 개원.” 『재외동포신문』. 2021.3.15.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74> (검색일: 2021.9.10.).
- 주현지. 2018. “국제적인 한국학 열풍,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신문』. 2018.7.20.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234> (검색일: 2021.7.8.).
- 홍소라. 2021.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시선이 달라졌다.” 『월간중앙』. 2021.6.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219> (검색일: 2021.7.8.).

○ 웹사이트

- 외교부. n.d. “공공외교란.”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9.25.).
- 한국국제교류재단. n.d. “KF 통계센터: 해외대학한국학현황.”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 (검색일: 2021.10.5.).
-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 동아시아연구소 현 대한국연구센터장 인터뷰.” 2016.9.23. <https://www.kf.or.kr/kf/na/ntt/selectNttInfo.do?nttSn=28589&bbsId=1304> (검색일: 2021.9.10.).
- 한국국제교류재단. 2021. “미국 명문 5개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 새로 생긴다.” 2021.8.24. <https://www.kf.or.kr/kf/na/ntt/selectNttInfo.do?nttSn=103291&bbsId=1061> (검색일: 2021.10.5.).

McGann, James G. 2020. 2019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https://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8&context=think_tanks. Accessed December 21, 2021.

○ 자문회의(심층면접, 화상회의)

강성운(독일 본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1.29.

기미야 타다시(일본 도쿄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1.22.

마리아 카르멘(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2.8.

박성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0.29.

소냐 호이스러(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1.4.

안토네타 브루노(이탈리아 로마사피엔자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1.15.

에바 라티파(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1.1.

윤상석(미국 아이오와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1.29.

응우옌 티 푸응 마이(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0.15.

이은정(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0.15.

최덕효(영국 셰필드대학교). 2021.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심층면접자료. 2021.11.12.

○ 인터뷰(화상회의)

A. 2021. 공공외교 전문가 인터뷰. 통일연구원. 2021.12.8.

K. 2021. 해외 한국학 파견 교원 인터뷰. 통일연구원. 2021.12.8.

○ 기타

외교부. 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2017.8.10.

부록



[설문지] 한국학 현황 및 수요조사

Survey on Korea Studies Status and Demand

Purpose of Surve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is conducting research on Public Diplomacy. For this study, we are investigating the demand for lectures on Korea Studies, North Korea Studies,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We would like to ask you about the current status of Korea Studies courses offered by your institution, the expected demand for the future, and any help that related institutions in South Korea, such as KINU, can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Studies. The total response time is expected to take around 10 minutes. The deadline for completing this survey is October 15, 2021.

The data collected in this survey will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and will never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Thank you in advance for agreeing to respond to this survey despite your busy schedule. If you have any inquiries related to our research and the survey, please contact us at the following email address (_____@kinu.or.kr).

Respondent Information

1. Please identify the name of your affiliated institution.
2. Please identify the location of your affiliated institution.

□ Status of the Korea Studies Program

3. Does your university or institution have a Korea Studies degree program?

- (1) Bachelor's
- (2) Master's
- (3) Ph.D.
- (4) None

4. Which of the following courses does your university or institution's Korea Studies program offer? (Multiple responses allowed)

- (1) Korean Speaking/Reading/Writing
- (2) Korean Linguistics
- (3) Kore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 (4) Korean Popular Culture
- (5) Korean Philosophy and Thought
- (6) Modern Korean Literature
- (7)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 (8) Modern Korean Culture
- (9) Contemporary Korean Culture
- (10) Korean Movies
- (11) Ancient Korean History
- (12) Modern Korean History
- (13) Contemporary Korean History
- (14) Government and Politics of South Korea
- (15) South Korea and Political Economy
- (16) South Korean Economy

- (17)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 (18) South Korea's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9) South Korea's Companies and Corporate Management
- (20) Religions in Korea
- (21) North Korean Government and Politics
- (22) North Korea and Political Economy
- (23) North Korean Economy
- (24) North Kore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25) North Korea's Society and Culture
- (26) North Korea's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27)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28) Inter-Korean Relations
- (29)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30)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South Korea
- (31) Other (open-ended)

5. What is the type of employment of the faculty employed in your university or institution's Korea Studies program? (Multiple responses allowed)

- (1) Tenure track professor
- (2) Non-tenure track professor/full-time lecturer
- (3) Part-time instructor/lecturer
- (4) Visiting professor/scholar
- (5) Other (short answer-type)

6. What is the major of the faculty members in the Korea Studies program? (Multiple responses allowed)

- (1) Linguistics

- (2) Korean Language Education
- (3) Literature
- (4) Film Studies
- (5) Visual Arts
- (6) Education
- (7) Psychology
- (8) Politics
- (9) Public Administration
- (10) Economics
- (11) Business Administration
- (12) Sociology
- (13) History
- (14) Anthropology
- (15) Journalism
- (16) Pedagogy
- (17) Psychology
- (18) Industrial Engineering
- (19) Technology Management
- (20) Other (open-ended)

7. How many students are enrolled in the Korea Studies Program at your institution this year (2021)?

- (1) 500 or more
- (2) 400-500
- (3) 300-400
- (4) 200-300
- (5) 100-200

- (6) 50-100
- (7) 50 or less

Demand for the Korea Studies Program

8. In which areas of Korea Studies program do you expect student demand to increase in the future? (Multiple responses allowed)

- (1) Korean Speaking/Reading/Writing
- (2) Korean Linguistics
- (3) Kore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 (4) Korean Popular Culture
- (5) Korean Philosophy and Thought
- (6) Modern Korean Literature
- (7)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 (8) Modern Korean Culture
- (9) Contemporary Korean Culture
- (10) Korean Movies
- (11) Ancient Korean History
- (12) Modern Korean History
- (13) Contemporary Korean History
- (14) Government and Politics of South Korea
- (15) South Korea and Political Economy
- (16) South Korean Economy
- (17)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 (18) South Korea's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9) South Korea's Companies and Corporate Management
- (20) Religions in Korea
- (21) North Korean Government and Politics

- (22) North Korea and Political Economy
- (23) North Korean Economy
- (24) North Kore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25) North Korea's Society and Culture
- (26) North Korea's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27)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28) Inter-Korean Relations
- (29)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30)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South Korea
- (31) Other (open-ended)

9. Please briefly explain why you think demand will increase in the areas you answered in the question above (short answer).

10. Please select 3 courses from the list below that you think most require additional courses to be offered in the Korea Studies program.

- (1) Advanced course in Korean Linguistics
- (2) Advanced cours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3) South Korea's Cultural Industry
- (4) South Korea's Government and Politics
- (5) South Korea's Foreign Policy
- (6)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7)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 (8) Korean Unification and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 (9)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n Economy

- (10)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n Society
- (11) South Korea's Corporate Management
- (12)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 South Korea
- (13)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Politics
- (14) North Korea's Foreign Policy
- (15)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Economy
- (16)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Society
- (17)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18)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1. What other courses are needed other than those listed in the above question? Please briefly explain why (short answer).

Evaluation of the Korean Studies Support Program of the Korean Government

12. The Korean government operates various programs to support Korea Studies at overse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Did you know about this Korea Studies support program?

- (1) Yes
- (2) No (Go to question 16)

13. Have you ever applied to the Korean government's Korea Studies support program?

- (1) Currently receiving support.
- (2) Received support in the past but not now.
- (3) Applied but not received.
- (4) Never applied.

14. If you have ever applied for the Korea Studies support program, which institution have you applied for?
- (1) KF (Korea Foundation)
 - (2) Academy of Korean Studies
 - (3)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4) Other (short-answer type)
 - (5) Never applied.
15.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for Korea Studies program? Or how dissatisfied are you?
- (1) Very satisfied
 - (2) Somewhat satisfied
 - (3) Indifferent
 - (4) Somewhat dissatisfied
 - (5) Very dissatisfied
16. If you selected “somewhat dissatisfied” or “very dissatisfied” in the above question, what is the reason?
- (1) Narrow field of support
 - (2) Lack of subsidy
 - (3)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 (4) Other (open-ended)
17. If you have any comments about the Korean Studies support program, please freely let us know (short answer).

□ KINU and Korea Studies Program

18. Did you know abou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 (1) I've never heard of it.
- (2) I know the name, but I don't know what kind of institution it is.
- (3) I know what kind of institution it is.
- (4) I have read or cited research reports of the KINU.

* KINU has many experts who study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KINU is considering providing the support for Korean Studies programs at overseas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following ways.

- (1) KINU experts develop and provide curriculum, textbooks, and lecture material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 (2) Online seminars or lectures
- (3) 1-2 weeks of special lectures abroad
- (4) Overseas instructor dispatch for one semester or one year

19. What do you think about KINU's experts providing curriculum and lecture material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in cooperation with your institution's Korea Studies Program?

- (1) It will be very helpful.
- (2) It will be somewhat helpful.

- (3) It will not be that helpful.
 - (4) It will not be helpful at all.
20. What do you think about KINU's experts providing online seminars or lectures in cooperation with your institution's Korea Studies Program?
- (1) It will be very helpful.
 - (2) It will be somewhat helpful.
 - (3) It will not be that helpful.
 - (4) It will not be helpful at all.
21. What do you think about KINU's experts providing local special lectures for 1–2 weeks in cooperation with your institution's Korea Studies Program?
- (1) It will be very helpful.
 - (2) It will be somewhat helpful.
 - (3) It will not be that helpful.
 - (4) It will not be helpful at all.
22. What do you think about dispatching KINU's experts as instructors abroad for one semester or one year in cooperation with your institution's Korea Studies Program?
- (1) It will be very helpful.
 - (2) It will be somewhat helpful.
 - (3) It will not be that helpful.
 - (4) It will not be helpful at all.

23. If you have any other suggestions regarding KINU's support for Korea Studies Program, please freely tell us below (short answer).
24. Please provide your email address. This is used to prevent duplicate responses and will be destroyed soon.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Study Series ■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히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욱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응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성공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 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디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옹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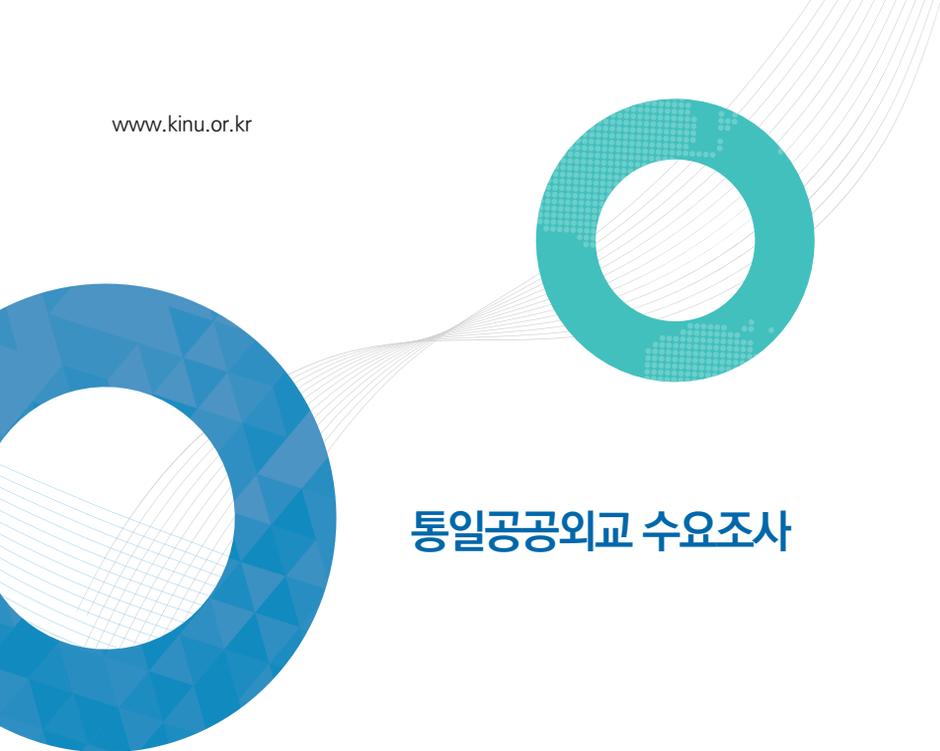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